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제357호
2024년 2월호

www.snuaa.org news@snuaa.org

남가주 문리대 신년 모임에 참석한 유홍림 모교 총장과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이 전·현직 문리대 동창회장들과 한자리에 모였다. 왼쪽부터 박제환, 김건진 전 회장, 유 총장과 김 총동창회장, 김종하 현 회장과 박정모 전 회장.

모교 총장 · 총동창회장 "우리도 문리대 출신"

남가주 신년 모임 함께 참석… "문리대 정신 이어갈 것"

최고령 이영일(정치 53) 동문 미주동창회에 1만달러 기부

남가주 문리대 신년 모임에 유홍림 모교 총장과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이 참석했다. 모교의 총장과 총동창회장이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함께 참석한 적이 있지만 단과대 동문 모임에 참석한 것은 미주 동문회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유 총장은 정치학과 80학번이고 김 총동창회장은 사회사업학과 66학번으로 두 분 모두 문리대 출신이다. 유 총장은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 2024에 설치된 SNU관을 방문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남가주에 사는 모교 기부자들을 초청해 감사 오찬을 하는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나 문리대 신년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한걸음에 달려와 자리를 빛냈다.

남가주 문리대 신년 하례식 겸 정기총회는 지난 1월13일 문리대 동문과 가족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열렸다.

유 총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문리대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3월 학부대학이 출범하는데 인간과 사회, 자연의 연결성과 그를 통합적으로 보는 폭넓은 식견을 교육체계에 구현하려고 한다"고 말해 문리대 동문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서울대는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처럼 전공 구분 없이 학생을 선발한 뒤 2학년 이후에 전공을 결정하게 하는 무전공 입학 형태의 학부대학을 설립해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옛날 문리대 이름처럼 문과의 이과의 경계를 허물고 학문간 장벽을 없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유 총장이 취임 이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유 총장은 "문리대 정신과 과학기술을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적지만 강한 인재를 키워내 서울대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미주 동문들의 성원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유 총장은 지난 1월7일 UC 어바인(UCI)을 방문해 하워드 길먼 총장과 두 대학간의 학술 교류를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첨단과학기술, 의학, 법학, 인문학, 한국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는데 길먼 UCI 총장이 오는 4월 서울대를 방문해 MOU를 맺을 예정이다. 는다.

이어 인사말에 나선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자신을 문리대 출신의 남가주 동창회 준 회원이라고 소개했다. 한국 1위 악기 제조업체 삼익악기의 회장이지만 미국에서도 여러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어 1년에 서너달은 남가주에 체류하기 때문이다.

건강이 좋지 않은데도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영일 동문과 부인. 이 동문은 이날 미주동창회에 1만 달러 기부 약정을 했다.

김 회장은 "지금 이자리에 설 수 있게 키워 준 문리대에 항상 감사하고 있고 어디 가서든 문리대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며 "사람이 되기 위해 문리대에 들어갔는데 다양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사람이 됐다"고 말해 역시 큰 박수를 받았다.

김 회장이 모교 발전기금으로, 사회과학대학 리모델링을 위해, 후배 장학금으로 쓰라며 지금껏 모교에 기부한 돈은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의 서울대 행사는 물론 남가주 모임에 참석해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받은 만큼 돌려주자'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김 회장은 "우리는 서울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특혜를 받고 살았다"며 "서울대 동문 모임은 만나면 즐겁고 유익한 것을 넘어 돌아갈 때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나눔 실천 등을 통해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는 동창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리대 최고령자로 참석한 이영일(정치학과 53) 동문은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킨 후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1만달러를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동문들의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동문 주소록 업데이트 … 실수로 회보 받지 못할 수도

각 지부 최신 주소록 확보 필요
100달러 동창회비 납부도 당부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는 미주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서울대 동문들이 다른 지역에는 어떤 동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해주고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는 서울대인'이라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미주 동문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다. 미주 전 지역 동문들에게 매달 8100여 부의 회보가 우편 배달되고 있다.

매달 회보를 발간하는 동창회는 미주에서 서울대가 유일하고 한국에 있는 대학 동창회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다. 매달 회보를 발간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며 "역시 서울대는 다르다"라는 표정으로 바라본다.

미주동창회보 제작에는 인쇄(3200불), 메일링(600불), 우표값(4200불)에 3개월마다 보내는 모금봉투(1900불)까지 8000불에서 1만불의 비용이 든다. 편집 스태프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순제작비다. 우편요금은 지난 1년새 두 번이나 올랐는데 1월 중순 또 인상됐다.

동창회비는 1년에 100달러다. 그런데 연간 동창회비를 보내주는 동문은 5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제껏 미주동창회는 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기존 동문 메일링 리스트에 올라있는 동문 모두에게 회보를 발송해왔다. 그러다보니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거주지를 옮긴 동문 주소로도 회보가 배달되는 낭비가 적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상강(의대 70) 회장이 이끄는 제17대 미주동창회에서는 기존 동문 주소록을 업데이트하고 미주 전체 통합적인 동문 주소록을 온라인으로 구축하기 위한TF팀을 구성했다.

미주동창회 TF팀원들은 3~4개씩 지부를 나눠 맡아 각 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주소록을 확보해 '미주 서울대 동문 주소록'을 만들 계획이다.

이상강 회장은 "각 지역 회장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존 주소록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회보를 받지 못하는 동문이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회보를 받지 못한 동문은 미주동창회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다.

"크루즈 평의원 회의서 소중한 추억 쌓아요"

6월1일~8일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
플로리다 출발, 마야문명 유적지 등 방문

오는 6월1일(토)부터 8일(토)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프린세스)에서 개최되는 제33차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는 "연례 평의원 회의를 통해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었던 미주 각 지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젊은 관악세대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된다"면서 "예전에 선배들이 떠나왔던 한국이 더 이상 아니다. 이미 선진국이 됐고 서울대가 그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 미주 동창회도 그에 따른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특히 "막강한 인재풀을 갖고 있는 미주 동문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며 "다양한 안건이 마련돼 좋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산하 29개 지부 회장들과 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들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이사(실버 및 골드 이상 등 포함)도 회의에 참가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크루즈 일정은 첫날(6월1일): 플로리다(Ft. Launderdale) 출발, 둘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셋째날: 코스멜(멕시코) 기착해 마야사원과 아름다운 백사장, 이국적인 정글 체험, 넷째날: 로아탄(온두라스) 기착해 아름다운 산호초, 열대 풍경 경험, 다섯째날: 벨리즈시티(벨리즈) 기착해 유카탄반도를 방문하고 마야문명을 관람하고 역시 열대 야생을 관람, 여섯째날: 코스타 마야(마할우알, 멕시코) 기착해 4곳의 마야 유적을 통해 진정한 마야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곱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마지막 밤으로 폐막 행사, 여덟째날: 플로리다(Ft. Launderdale) 도착이다.

평의원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은 "많은 인원이 참가 신청을 해서 일단 주관 여행사에 예약한 숫자는 마감했다"면서 "아직도 추가 참가가 가능하므로 더 많은 평의원은 물론 일반 동문도 참여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백옥자 국장 (818-395-1967)

장병희 편집위원

서울대, 'CES 2024'에 SNU관 설치

스타트업 · 기술 전시
AI부문 혁신상 수상

서울대는 지난 1월9~12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 IT 박람회 'CES 2024'에 SNU관을 설치하고 스타트업 기술을 전시했다.

스타트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약 93㎡ 규모의 독립 부스로 운영된 SNU관은 대학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과 사업화 우수 실험실 기술 5곳이 참여해 인공지능(AI)분야 유망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소개했다. 서울대가 CES에 참가한 것은 2020년, 2022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전시 참여기업은 △에스엔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표시장치 및 소재) △투모로 로보틱스(AI기반 지능형 로봇) △세코어로보틱스(로봇 자동화 인프라 개발) △펭귄포인트(개인건강데이터거래 및 유통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 △모플랫(전기차 프리미엄 차량용품 Smart Face) △플래닝고(가상 환경에서 사진 촬영이 가능한 버추얼 스튜디오 웹 서비스) △아이디어오션(차세대 로봇 기계 장치 자동설계 소프트웨어) 총 7개 기업이다.

기술 전시는 서울대 내 △AI연구원(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로봇), △바이오시스템제어 및 정밀농업연구실(농기계 자율작업경로 계획/탐색 시스템과 농기계 자율주행키트), △큐렉소(고관절 발목 연결을 통한 걸음걸이 보조장치), △INRoL(손동작 트래킹 VIST 기술)이 참여했다.

특히 참여기업 중 아이디어오션(김중호 대표)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받아 CES 2024의 인공지능(AI)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기계공학부 김윤영 석좌교수 연구실에서 17년간 축적된 메커니즘 자율설계 기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창업한 아이디어오션은 서울대 실험실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7월 창업 이후 단기간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스타트업이다.

CES 2024에 설치된 SNU관. 대학기술을 활용한 7개의 스타트업과 사업화 우수 실험실 기술 5곳이 참여해 인공지능(AI)분야 유망 기술을 비롯해 다양한 로봇 기술들을 소개했다.

SNU관 참가기업 외에도,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만드로(Mark 7D/이상호 대표)를 비롯하여, 알고케어(NutriStation/정지원 대표), 에스엘즈(ROUTi-AR/이유미 대표), 엑소시스템즈(Next-Gen Digital Health: AI-Powered Digital Biomarker/이후만), 솔리브 벤처스(Therapeutic Sensory SMART Toy/서주호 대표), 휴로틱스(H-Flex: Tailored to users, Customizable wearable robots/이기욱 대표) 등 혁신상을 받은 서울대 교원 및 동문 기업도 CES 2024에 참가했다.

유홍림 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는 기부자 및 동창회 임원들. 지난 1월 7일 열린 오찬모임에는 4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대, 월드클래스 대학 진입은 동문들 덕분"

유홍림 모교 총장 초청 기부자 오찬 모임
지난 10년 미주 동문 기부금 2000만 달러

"지난해 6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 이어 두번째 만남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유홍림(정치학 80) 모교 총장이 미주 지역 기부자 초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남가주의 어바인(Irvine)을 찾았다.

이날 모임에는 기부자들을 비롯해 동창회 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총장 일행을 맞았다. 유 총장은 인삿말에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 지난해 미주 동창회 모임이었다"며 "또 다시 미주지역 동문들을 만나게 돼 이젠 이곳 동문들이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곳 선배 동문님들의 지원으로 서울대가 이젠 월드클래스 대학에 진입하게 됐다"고 고마움을 나타낸 총장은 "이제 모교는 '학부 대학'을 설립해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학문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토론하는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찬에는 벤자민 홍(문리대 55) 전 은행장, 홍수웅(의대 58) 동문, 한홍택(공대 60) UCLA 석좌교수, 노명호(공대 61) 전 미주 동창회장, 박민식(수의대 65) UCLA 교수, 남윤호(문리대 81) 중앙일보 대표 등이 총장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아 환담을 나눴다. 고액 기부자 가운데는 박종수(수의대 58) 동문 부부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종철(치대 62)) 서울대 발전기금 미주재단 이사는 축사에서 "지난해 340만 달러에 이르는 모교 기부금이 모금돼 지난 10년간의 미주지역 모금액은 2,000만 달러에 이른다"며 모든 기부자들에게 감사를 표한 뒤 "문리대 이효상 동문이 올해 추가로 2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300만 달러를 채우셨고 남가주에서 한홍택 UCLA 석좌교수, 노명호 전 미주 동창회장, 수의대 박종수 박사 그리고 약대 오세경 박사께서 각각 10만 달러씩 올해도 추가 기부를 했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지난해 첫 미주 지역 방문 때 젊은 총장이 왔다고 환대를 해주셔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실리콘 밸리의 구글 캠퍼스에도 100여 명의 동문, 보스턴의 하버드대에도 100여 명의 동문들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어 앞으로 미주 지역 동창회가 이들 젊은 세대와 연계해 사업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무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총장이) 자주 오셔서 서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동창회에서 창업 모임(SNUAA Entrepreneurship Network)을 주도하고 있는 한홍택 박사는 "서울대를 포함한 한국의 1,600여 개 스타트업 회사들과 연계해 이들의 미주 진출을 돕겠다"고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남윤호 중앙일보 대표는 종이신문의 앞날을 소개하며 애정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당부,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남가주 동문 자녀들 서울대에 30만달러 기부

박민식 · 박금옥 동문 부부 100만불 기부하자
세 자녀, 각 10만불씩 '부모 모교 사랑'에 동참

남가주 동문 박민식(수의대 65), 박금옥 (사대 63) 부부가 서울대 모교에 1백만달러 기부를 이룬 데 이어 두 동문 부부의 자녀들이 부모의 기부대열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박민식, 금옥부부는 지난 10여년간 모교에 꾸준히 기부를 하면서 지난해에는 1백만달러를 채운 바 있다. 두 동문의 세 자녀 딘 박, 이렌 전, 데이빗 박은 부모의 기부활동을 지켜보면서 기부 헌신의 의미를 새겨 오다가 수 년전부터 기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지난해에는 3남매와 온가족이 부모의 모교인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다.

관악캠퍼스의 시설을 투어하고 학생, 교직원들과 만나면서 서울대의 명성과 가치를 새삼 깨달으면서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서울대 기부 참여의 방법을 찾아보게 됐다.

딸 이렌 부부는 모두 의사, 딘과 데이빗 부부는 모두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크게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부모 박민식 부부와 의논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번에 각 자녀들이 10만달러씩 총 30만달러를 서울대학교의 박민식 금옥 기부 어카운트에 기부를 하게 된 것이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에 거주하는 3남매는 지난해 12월 말로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미주재단에 수표를 전달하면서 기부를 마쳤다.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은 1월 12일 남가주를 방문해 기부자 오찬을 마련한 자리에서 딘 박, 이렌 전, 데이빗 박에게 증정하는 감사패를 박민식, 금옥 부부에게 대신 전달했다. 유홍림 총장은 또

남가주 어바인에서 1월 12일 열린 서울대 유홍림 총장 기부자 오찬에서 유총장이 박민식 금옥 동문부부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 동문이 평북 평양 출신이라는 점을 배려해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된 평양 고지도를 정교하게 그린 카피본을 선물했다. 유 총장은 박 동문 부부에게 "미국에서 대를 이어 부모의 모교에 기부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우셨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민식 동문은 UCLA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유전자에 관한 획기적인 연구와 특허로 이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은퇴한 바 있다.

박 동문은 "기부는 가장 값진 헌신의 방법으로서 서울대 모교를 지원하는 기부와 모금활동이 계속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인종(농대 74)

18개 단과대 아우르는 총괄 회장 “제가 느낀 즐거움, 함께 나눌 것”

남가주 임춘택 총동창회장

남가주는 미주 지역 동창회 중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고 각 단과대 별로 회장단을 운영하고 있어 동창회장 공식 명칭이 총동창회장이다.

문리대, 사대, 공대, 농생대, 음대, 미대, 법대, 간호대, 법대, 음대, 미대, 간호대, 의대, 치대, 수의대, 약대, 생과대, 대학원 등 각 단과대 모임 때 수십 명의 동문들이 모이고 골프대회 등을 통해 단과대 간 ‘친목과 경쟁’을 펼치기도 한다.

임춘택(상대 68) 총동창회장은 “여러 단과대학 선후배를 만나 교류하면서 삶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70이 넘은 나이에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지, 이런 즐거움을 다른 동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미주동창회 재무국장도 맡고 있는 임춘택 회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주변에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임 회장은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는 돈 그리고 시간과 재능 기부가 필수적”이라며 “신임 총동창회장으로서 돈

임춘택 남가주 총동창회장 부부.

있는 선후배가 흔쾌히 기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동문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회원에 준하는 명칭과 임무를 줘 동창회의 외연을 확장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은퇴한 선배들의 봉사로 현재 1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며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임춘택 회장은 LA한인타운에서 40년 넘게 회계 사무실을 운영해왔으며 미주 최대 한인 방송인 라디오 코리아의 뉴스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해 한인들에게 재무, 회계, 세무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

‘벤처업계 한국인 신화’ 퀄컴 부사장 “다양한 소모임으로 동문회 활성화”

북가주 김범섭 회장

김범섭(공대 79) 신임 회장은 ‘미국 벤처업계의 한국인 신화’로 불리는 자랑스러운 동문이다.

‘자랑스러운’이란 수식어를 붙인 것은 그가 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정부가 선정한 ‘전세계 자랑스러운 한국인 60인’ 중 한 명으로 경축식에 초청받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UC버클리에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고 1994년 34살의 나이에 카이스트 교수가 됐으나 2000년 실리콘밸리로 돌아와 벤처기업 버카나와이어리스를 창업했다. 그가 만든 회사는 퀄컴이 5600만달러에 인수했고 그는 부사장으로 퀄컴에 합류해 지금껏 휴대전화 핵심칩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미국 전자공학회(IEEE) 펠로우이고 미국 반도체 저널 부편집장도 여러차례 역임했다.

김 회장은 “음대 동문 음악회, 동문 야유회 등에 간간이 참석하던 중, 이장우 전 회장이 동창회를 활성시키기 위해 만든 하이킹 그룹에 참여하면서 동창회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게 됐다”며 “피

김범섭 북가주 동창회장 부부.

크닉, 연말파티, 골프대회 이외에 운동과 친목을 같이 할 수 있는 하이킹 모임처럼 동문들이 관심있어 하는 소모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공대 84학번 김민규 박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섭 회장은 부부가 서울대 출신이다. 부인 최승희(사회대 경제학과 81) 동문은 UC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벤처캐피탈에서 일하다 은퇴했다. 현재 하이킹 그룹 총무를 맡고 있는데 헌신적인 ‘동창회 일꾼’으로 2022년 미주동창회장상, 2023년 북가주 동문회가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 같은 지부 관심 · 생활 나누는 소모임 만들 것”

코네티컷 박성훈 회장

박성훈(자연과학대 91) 동문은 동창회 사랑이 지극했던 고 유시영 동문이 별세한 후 남편이 병상에서도 놓지 않았던 동문회 모임이 흐지부지되는 것이 안타까워 모임 활성화에 두 팔을 걷어부친 아내 유은주씨의 요청으로 코네티컷 지부장을 맡았다.

코네티컷 지부는 예일대에 공부하러 온 박사과정이나 포스닥 젊은 동문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 60년대 유학 온 의대 54학번 김창수 동문부터 2013학번 김지영(인문대) 동문까지 무려 60년의 나이 차가 난다.

박성훈 회장은 “저보다 20년 이상 이하로 차이나는 선배님과 후배님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고 반가웠다”며 “나이 차가 많이 나지만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배경과 역사를 가진 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듣고 이야기하며 공감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코네티컷 지부는 이제 막 무럭 무럭 자라나기 시작하는 새싹같은 지부”라며 “미국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박성훈 코네티컷 동창회장 부부.

혼자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분기당 모든 분들을 모시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관심과 생활을 더 잘 나눌 수 있는 작은 그룹의 모임을 여러 차원에서 가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동창회 기금을 꾸준히 모아서 장학금 지원도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염지하(사범대 91) 동문과 함께 2000년 오하이오 주립대로 유학와 2008년부터 엑추어리로 일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서 일하는 동문이 다수 “젊은 동문들 유입 위해 노력할 것”

휴스턴 김정환 회장

휴스턴은 일명 ‘에너지의 수도’라고 불린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서 일하는 동문들이 매우 많다.

김정환(공대 80) 신임 회장도 현재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Energy & Infrastructure Adviser로 근무하며 한국 정부에 텍사스와 미국의 에너지 관련 정보를 분석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자기 소개를 요청했더니 그가 한 말이 재밌다. 지하에 석유가 있나 없나, 있으면 얼마나 있나를 계산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울산앞바다 동해-1에서 천연가스를 발견하는데 일조하였다고 답했다.

김정환 회장은 “동창회는 좋은 선후배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동창회가 많이 노령화돼 있어 젊은 동문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동창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동창회 선배한테 2년 동안 부부동반 댄스 교습을 받고 코로나 전까진 연말 파티를 한 것이 동창회 활동

김정환 휴스턴 동창회장 부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며 “후배들에게도 참 좋았던 기억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동창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연말 모임에는 70여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했고 30~40대 젊은 동문들도 많이 참여했다.

그의 얘기를 들으면서 놀랐던 것이 하나 있다. 재수하고 함께 입학한 친구들과 지금도 계속 만나며 우정을 나눈다는 것이었다. 사람 관계에 진심인 그가 이끌어갈 휴스턴 지부의 올 한해 모습이 많이 기대된다.

“하모니카 불면 기분 좋아지고 몸은 건강해져요”

윤성희 동문의 하모니카와 나의 인생

윤성희
(사대 58)

북가주 윤성희(사대 58) 동문은 ‘하모니카 전도사’다. 미국은 물론 세계 어디든 오라는 곳은 마다않고 찾아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하모니카의 건강 효과를 알리니 ‘하모니카 전도사’이고, 목회학을 공부하고 선교 활동을 하면서 하모니카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니 말그대로 ‘하모니카 전도사’인 셈이다.

윤성희 동문은 미국 하모니카 연맹(SPAH) 산하 건강증진 위원회 창립위원장이었고 세계 하모니카 경연대회 공인 심판관이자 스탠포드대 의대 외래강사로 ‘하모니카와 호흡 건강증진’을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다. 참고로 윤성희 동문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한국인 첫 공중보건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세계은행의 보건분야에서 일하고 존스 홉킨스대 보건대학원에서 국제보건학을 가르친 보건 전문가다. 그가 설파하는 하모니카의 건강효과가 실제 사례는 물론 의학적으로도 인증받았다는 얘기다.

하모니카가 건강에 매우 좋은 악기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다. 하모니카는 들숨과 날숨을 모두 이용하는 유일한 악기다. 하모니카를 불 때 공기를 마시면 횡격막이 하강하고, 폐가 확장돼 3억 개 정도의 허파꽈리에서 산소와 탄산가스 교환이 활발해진다. 하모니카를 불고 나면 혈중산소 농도가 약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들면 호흡을 주관하는 폐가 쪼그라들면서 운동성이 낮아지는데 특히 고령자가 하모니카를 불면서 규칙적으로 깊은 숨쉬기 운동을 하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폐 기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윤성희 동문이 하모니카를 처음 구경한 것은 6.25 피란 시절 부산 자갈치 시장 옆 국제시장에서다.

“미군부대에 꿀꿀이죽 한 그릇 얻어먹으러 갔다가 철조망 뒤 흑인 병사가 작은 하모니카로 ‘오!수산나’ 노래를 부는 것을 보고 놀라 집으로 뛰어와 엄마한테 ‘미군이 껌을 입에 집어 넣더니 노래가 나왔어요!’ 말했다가 ‘이놈아, 그게 하모니카라는 거다’ 야단만 맞았어요. 그리고 다음 해 생일 때 일제 밀수품 하모니카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윤 동문은 “그때 어머니가 주신 하모니카는 미국 이민오면서 분실했지만 엄마가 좋아하던 ‘따오기’ ‘푸른하늘 은하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지금도 어머님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하모니카는 윤 동문 뿐 아니라 많은 이에게 추억을 부르는 ‘마음의 악기’다. 변변한 악기는 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도 하모니카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윤 동문은 미국에 와서 뉴욕골프센터 회장으로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한 이전구(농생대 60) 동문에게 하모니카를 배웠다. 취미로 불던 하모니카가 그의 인생 화두가 된 건 20년 전 동부에서 서부 실리콘밸리의 팔로 알토로 이주하면서부터다.

교회 예배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윤성희 동문.

존스 홉킨스대 교수 역임한 국제 보건 전문가
팔로알토 커뮤니티서 하모니카로 사회봉사
한국과 미국 교회 수십 곳서 연주법도 강의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구호 만든 주인공

“공기가 너무 좋고 따뜻해서 다시 하모니카를 불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나 학교 어린이, 병원 환자들을 찾아가 하모니카 연주 봉사를 하면서 하모니카로 인생 2막을 열게 된 셈이지요.”

그는 팔로 알토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시니어 하우징에 하모니카 클럽을 만들어 10년 넘게 강의를 했고 남침례교단 국내선교부가 인정하는 ‘하모니카 전도법’을 개발해 전도 사역도 펼쳤다. 샌프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지역 25개 교회에서 각각 4주씩 하모니카 부는 법을 강의했고 한국 분당 지구촌교회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해 교회 목자 600명에게도 하모니카 전도법을 알렸다.

30개국이 넘는 나라를 여행하면서 크루즈 선상에서 또 투어 버스에서, 노변에서 한국 노래를 하모니카로 소개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힐링 타임을 선사했다.

윤 동문은 앞으로도 하모니카를 불며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동안 해온 사회봉사, 복음 전도, 음악치료와 질병 예방 연구 보급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실리콘밸리에 하모니카 페스티벌을 만들고 통일한국을 염원하는 하모니카 대장정을 하고 세계 하모니카 문화센터도 만들고 싶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모니카 수필집을 발간하는 것이 앞으로의 꿈이다.

윤 동문은 “하모니카는 음악을 몰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한 달만 배워도 쉬운 동요를 멋지게 부를 수 있다. 만날 수 있으면 5분 만에 기본 테크닉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많은 동문들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하모니카 곡은 대개 동요가 많아 곡을 연주하다 보면 어린 시절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우울하거나 짜증날 때 불면 감정을 표출해서 기분도 좋아지게 만든다.

한편, 하모니카로 도배된 인터뷰 말미 그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6명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크게 늘자 한국 정부가 강력한 산아 정책을 펼치면서 1970년대 나온 캠페인 구호다. 윤 동문이 바로 그 구호를 만든 주인공이다. 미국 오기 전 그는 보건사회부 가족계획협회에서 계몽교육 홍보 전국 책임자로 일했다.

윤 동문은 “60년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에서 70년대 ‘딸 아들…’에 이어 80년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부럽지 않다’ 까지 아이 낳지 말라고 정부가 대국민 홍보전을 펼쳤는데 지금은 출산율 0.6명으로 인구 위기가 나라의 최대 걱정거리가 됐다”며 “기회가 되면 저출산에서 고출산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언도 하고 싶다”고 전했다.

2001년 베니스 여행 당시 콘돌라를 타고 ‘오! 솔레미오’를 부르고 있는 윤성희 동문.

윤성희 동문이 개설한 팔로알토 노인아파트 하모니카 클럽의 시니어들.

한국 수능 최초 만점자 오승은 UC샌디에이고 교수

“보스턴서 이사왔는데 동문들 있어 반갑고 든든”

“H.O.T.가 뭐죠?” 라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의 주인공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초 만점자 오승은 (물리학과99)동문이 최근 한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 물리학과를 선택한 이유와 수능노트에 대한 인세, 미국에 와서 겪은 일 등을 이야기했다. 오 동문은 199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1968년 예비고사부터 국가주관 대입시험이 시작된 후 30년 만에 처음 나온 만점자였다. 지난 1월3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 226회 ‘최고의 선택’ 특집에는 오 동문이 출연했다.

지난 1월초 방송됐던 유퀴즈 프로그램은 방송인 유재석이 MC를 맡아 시청자가 매우 많은데다가 주목을 끌었던 인터뷰 속 한마디 때문에 오승은 동문의 출연이 큰 화제가 됐다.

대입 당시 많은 사람이 첫 만점자 정도가 되면 당시 가장 인기 있던 보이그룹 HOT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공부를 잘하려면 그 정도 시간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너무 많다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유퀴즈에 따르면, 실제는 달랐다. 오 동문은 해당 발언에 대해 “그 말은 진짜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 동문은 “H.O.T.가 얼마나 대단한 그룹인지 알고 있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맥락이 와전된 것 같다”며 “다섯 명인 건 알지만 (멤버들을) 잘 모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까지 혼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즘대로라면 일종의 가짜 뉴스였다.

최근 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미주 동창회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오 동문은 “기사나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서 “제 모습을 화면에서 보는게 오글거려서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강하지도 않고 언론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오승은 동문은 현재 UC샌디에이고에서 테뉴어 트랙을 밟고 있다. 동부에서 연구 잘하고 있다가 서부로 온 이유는 바로 테뉴어 트랙 때문이다. 그가 밟고 있는 테뉴어 트랙은 조교수로 임용되어 종신교수가 되기 위해 심사받는 과정이다.

그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반반 섞어서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2023년 7월 UC 샌디에이고 조교수가 됐다.

오 동문이 만점 받은 시기에는 이과 전국 1등은 대개 모교 물리학과에 진학한다. 서울 한성과학고 출신인 오 동문도 1999년 모교 물리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오 동문이 물리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교시절 친구의 편지가 결정적이다. 그는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장문의 편지를 써줬다”며 “편지를 보고 ‘그런가 보다’하고는 물리학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친구는 편지에서 ‘너 같이 공부 잘하는 애가 인류 지식의 최전선에서 순수 학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 그는 방학 때도 물리 캠프를 갈 정도로 공부를 즐겼다.

지난 1월3일 방송된 유재석의 유퀴즈 프로그램의 한 장면. [tvN화면캡처]

공부 비법 쓴 ‘수능 노트’로 유학자금 마련
MIT박사 후 하버드 의대서 생명물리학 연구
“유학은 넓은 세상 보며 성장한 기회였다”

만점 인터뷰 당시 H.O.T 모른다고 해 화제
“언론에 와전된 것...멤버 이름 다 몰랐을 뿐”

3년6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2003년 MIT로 유학왔다. ‘오승은의 수능노트’로 번 돈이 유학자금의 밑천이 됐다.

대입 공부 수험기인 ‘오승은의 수능노트’는 고3 겨울방학 내내 직접 정리한 수능 준비 노트다. 만점 인터뷰부터 워낙 화제가 돼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도 직접 만났다. ‘공부의 전설’이 직접 쓴 비법 노트는 자연스럽게 베스트셀러가 됐다.

오 동문은 인세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기억나느냐는 유재석의 질문에 “정말 분에 넘치게 많이 받았다. 고등학생 신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유학생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살았을텐데 더 넓은 세상을 보니 성장하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오 동문은 MIT를 졸업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MIT는 들어가자마자 수업을 거의 안 들어도 되고, 석사과정 몇 과목만 듣는다. 1, 2년 다니면 수업은 다 통과하고 처음부터 연구에 몰입하길 바란다. 처음 연구실 로테이션을 하다가 두번째로 간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가설을 제안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이 6개월이면 될 것 같았다. 졸업하는데 그게 안 풀려서 7년 걸렸다. 그 가설이 틀렸다는 걸 밝히고 졸업했다”고 털어놨다. 오 동문은 “좋은 훈련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연구 주제는 ‘신경세포 활동전위의 라벨 프리 광학적 측정’이었다.

그렇게 2010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하버드대 의대로 옮겨 생명물리학을 공부하는 연구원으로 7년을 지냈다. 2013년 세계적인 과학 저널 ‘네이처’에 성장판 연골 세포가 뼈를 길어지게 하는 원리를 밝힌 논문을 싣기도 했다.

그는 ‘공부하는 게 지겹진 않으냐’는 질문에 “저도 하기 싫은 공부는 안 한다”며 “지금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고, 재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를 이렇게 오래 공부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즐겁게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열린 가능성을 놓고 재미있는 연구, 의미있는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싶다”고 했다. 또 교수로서 제자 양성을 통해 보람있는 삶도 살고 싶다고 했다.

그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리지널한 연구를 한국인 학자들이 많이 해서 대중들에게 이름이 더 친숙해졌으면 좋겠다”며 “먼 데 있는 게 아닌데, 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오 동문이 ‘HOT를 모른다’라는 와전과 달리 사회 생활에도 적극적이다. 보스턴에 살 때는 뉴잉글랜드 지부 산하 관악회에 참석했다. 1년에 2차례씩 관악회 주최 피크닉에 참석해 다양한 분야의 동문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기도 했다.

또한 샌디에이고에 와서도 모교 물리학과 박상렬 동문을 만나 동문 모임에 대해서 듣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동창회보에 “새로운 도시에 이사를 왔는데 서울대학교 동문들이 있는 것이 반갑고도 든든하다”고 밝혔다.

오 동문의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결혼한 친오빠 가족이다. 그가 유학 길에 오르기 전 어머니는 딸이 의대에 진학하지 않은 아쉬움을 털어놨다고 전한다.

“의대 애들은 큰 항아리 여섯 개에 든

1998년 12월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 당시 TV화면 모습. 오승은 교수가 만점 소식을 듣고 부모와 기뻐하고 있다. 유퀴즈 프로그램의 한 장면. [tvN화면캡처]

2023-2024학년도 UCSD입학식에서 동료 교수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이 오승은 교수.

물을 먹어 치우면 되는데, 넌 지금 태평양에 들어가서 뭘 잡아야 할 줄도 모르면서 자맥질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의대는 6년이라는 정해진 과정이 있지만, 오 동문의 연구는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었다.

이에 아버지는 "항아리 물 퍼먹는 것보다 자맥질이 재미는 훨씬 더 있다"며 오 동문의 편을 들어줬다고 한다.

그는 "지금껏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부모님의 지원이 컸다"며 "잔소리도 안 하고, 그냥 믿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또 '공부를 잘하는 데는 DNA가 중요하냐'는 질문에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공부를 잘하셨다.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의 아버지 오형환씨는 모교 법대 출신으로 1970년 행정고시 8회 수석 출신이며 어머니 이우인씨는 송파구 방산중학교 사회 교사였다.

그는 "부모님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셨다"며 "공부하는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TV를 안 켜셨다"고 했다.

현재 그의 목표는 일단 조교수로서 서

오승은 교수가 친구 가족의 강아지인 젤리와 샌디에이고 비치에서 태평양을 즐기고 있다.

바이벌 하는 것과 좋은 연구실을 꾸리고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삶 전체로서는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세계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모교 교수 · 동문 10명 선정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

미국의 학술정보 데이터 분석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전 톰슨 로이터)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ighly Cited Researchers, 이하 HCR)'에 모교 소속 연구자 10명이 선정됐다.

올해 클래리베이트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논문이 피인용된 횟수를 바탕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연구자를 HCR에 선정했다.

단일 분야 피인용 횟수가 상위 1%에 못 미쳐도 여러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면 '크로스필드(융합)' 부문으로 선정한다. 클래리베이트는 노벨상 수상 예측 후보도 발표하는 만큼 HCR로 선정된 연구자는 노벨상에 도전 가능한 이들로도 해석된다.

전 세계 67개국에서 총 6849명이 선정된 가운데, 국내 연구자는 65명이 선정됐다. 모교를 1소속으로 둔 연구자는 4개 분야에서 10명이 선정됐다. 모교와 타 대학 · 기관 소속을 합해 HCR로 선정된 모교 동문은 27명이다.

현택환(화학 83)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는 올해로 10년 연속 HCR에 선정됐다. 재료화학 분야에서 선정된 현 교수는 균일한 나노입자인 양자점을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승온법'을 고안했다.

재료과학 분야에서 김대형(응용화학96) · 최장욱(응용화학96)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도 선정됐다. 유연 전자 소자(soft electronics)를 연구해온 김대형 교수는 최근 공동연구를 통해 외부 전원 없이 안정적으로 광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친환경 양자점 광센서와, 피부 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웨어러블 맥박 센서를 구현했다.

최장욱 교수는 배터리 분야의 석학이다. 차세대 나트륨이차전지, 마그네슘이차전지용 전극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서울대-현대차 배터리 공동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미생물학 분야에선 하성민(대학원13) 동문이 선정됐다. 현재 UCLA 박사후 연구원인 하 동문은 유전체 집합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비교유전체학, 계통발생학 등 다양한 생물정보학 도구와 방법을 활용해 대규모 유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혁신적인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현했다.

임상의학 분야에는 전 · 현직 모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3명이 올랐다. 위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방영주(의학73) 명예교수, 표적항암제의 치료를 규명해 폐암 환자의 수명을 5배 연장시킨 김동완(의학89) 교수, 유방암 국제 임상 시험을 선도한 임석아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뽑혔다.

크로스필드 분야에선 김해겸(대학원11) 동문과 류영렬(조경97)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이태우 재료공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김해겸 동문은 차세대 배터리를 연구한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이차전지를 만들어왔고, 현재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 플루오린과 인산, 바나듐을 합친 화합물로 칼륨이온 배터리용 양극재를 개발하고 있다.

류영렬 교수는 농생대에서 나온 첫 HCR 연구자다. 농림생태계의 탄소순환에 대한 글로벌 초학제적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우주 위성센서의 광합성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차세대중형위성 4호의 광합성알고리즘개발 책임을 맡고 있다. 슈미트 퓨처 재단의 지원 하에 차세대 식생모형개발 국제컨소시움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태우 교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 발광체를 연구해왔다. 상온에서 세계 최초 가시광 영역 다색 발광 다이오드를 개발한 이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입자의 결함 제어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다이오드의 발광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를 해왔다.

하기환 동문(공대 66)의 안나푸르나 트레킹(2)

멀리 보이는 마차푸차레 정상 휘감는

일출 때 황금빛으로 물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의 마차푸차레 정상. 산의 모습이 신비감을 자아낸다.

원정기간: 2023년 11/3~11/13일
원정대원: 하기환, 이영근, 론 김, 제인 김, 고수미, 김태미(이상 재미스키협회 회원 6명)

이른 아침 랏지 옥상에서 본 안나푸르나 정상
길 중간 현지인들 이방인에 '나마스테' 인사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

예측하기 힘든 날씨에 고도 높아질수록 고산병
가이드 "비스타리, 비스타리" 외치며 안내
히터 없고 방음 안되는 랏지 끙끙 앓는 소리만

안나푸르나 산속으로

승무원이 쟁반에 귀 막는데 사용하라는 솜을 담아 나눠준다. 포카라까지 사고도 자주 나는 이 낡은 비행기를 타면 30여분, 버스로 간다면 6시간 정도가 걸린다.

포카라행 비행기를 탈 때 요령이 있다. 오른쪽 좌석에 앉아야 히말라야 산맥을 볼 수 있다. 짧은 비행이 끝나고 포카라에 도착했다. 네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포카라는 유명한 페와 호수가 있다. 이곳은 휴양도시인 동시에 안나푸르나 트레킹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공항에는 그동안 연락을 해 온 또 한 명의 가이드와 포터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포터는 우리 대원 2명당 1명씩이므로 6명인 우리 팀에 3명이 동행할 것이다.

네팔 청년인 포터들의 인상이 마치 대학생들 같이 맑고 단정하다. 짐을 짊어지고 갈 노동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2대의 4륜 지프차에 나눠 타고 2시간 정도 이동하여 나야폴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본격적인 트레킹이 시작되는데 네팔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야폴에서 팀스(TIMS)와 입산허가증(ACAP)을 받고 비레탄티로 향했다. 그곳에서 2번째로 허가증을 확인했다. 이곳부터는 포장이 안 된 거칠고 좁은 길이 시작된다.

4륜 구동의 지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다. 2시간 정도 차도 사람도 고생했던 오름 길이 끝나고 막다른 종점 삼릉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유명한 흔들다리, 현수교가 보인다. 이곳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야 한다. 장비를 챙기고 다리를 건너며 우리의 안나푸르나 트레킹이 시작됐다.

쇠그물로 만든 이 현수교는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완공되었다. 다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계곡까지 내려가 횡단했기에 하루를 더 써야했다고 한다. 이제 흔들다리의 완성으로 출발지 삼릉과 맞은 편 마을 지누단다까지 10분으로 단축되었다니 계곡의 크기가 실감난다.

등산로는 돌로 만들어진 계단의 연속이다.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해 만든 돌계단이라지만 힘든 산행이기에 악명이 높은 계단이었다. 그런 돌계단을 오르고 걷다 보니 어느새 촘롱에 도착했다. 우리가 가는 코스에서 가장 큰 마을이었다.

촘롱계곡으로 내려가는 길 중간에도 허가증을 검사하는 체크포인트가 있었다. 이곳은 네팔의 27개 부족 중 하나인 구릉족의 마을이다. 우리와 비슷한 얼굴을 가진 구릉족은 몽골계였고 불교도였다. 촘롱에는 한국어 간판도 있을 만큼 한국 여행자들에게 친숙한 마을이기도 했다. 당연히 이곳에는 비교적 좋은 랏지(lodge)들이 많다. 가이드가 예약해 놓은 랏지

황금빛 일출 '감동'

에 도착하니 깨끗하다. 방마다 화장실도 있고 따듯한 물도 사용할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랏지에 딸린 식당에서는 한국 신라면도 팔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 랏지 옥상으로 나갔다. 어느 사이 안나푸르나 산들이 성큼 다가와 있었다. 멀리 보이는 마차푸차레 정상의 황금빛 일출이 감동이다.

설산이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모습이 장엄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정말 맘모스 집에 걸린 그림과 똑같이 생겼다. 정상의 바위가 2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물고기의 꼬리 모양. 이러니 마차(물고기) 푸차레(꼬리)라고 이름이 붙었던 것이다.

가이드가 아침 식사 후 8시에 출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빨리 빨리에 익숙한 한국인답게 8시가 되기 전에 벌써 걷기 시작했다. 대원들 모두 좋은 컨디션으로 산행을 시작했다. 어제 우리가 오른 고도는 1,270미터(4160 ft)였다. 오늘은 이곳 촘롱 2,170m(7,119ft)에서 뱀부 2,310m(7,579 ft) 랏지로 가는 여정이다.

살아 있는 자연속으로

히말라야 산록이라 평지가 부족해 그런지 계단식 논밭이 펼쳐진다. 깊어가는 히말라야 산속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농촌 모습이다. 그러나 또 돌계단이 시작된다. 계속되는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끝 모를 반복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돌계단을 2km 정도 오르니 Upper 시누와 마을이 나온다. 2번째로 만나는 흔들다리를 건너 2시간 정도 돌계단을 내려가니 lower 시누와 마을이다.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또 올라간다.

미국에서 산행을 할 때 경험했던 스위치백의 트레일하고는 너무 틀리다. 트래킹 폴을 의지하여 힘을 얻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계단에서는 무릎이 신경 쓰인다. 이런 길을 현지인 포터들이 무거운 짐보따리를 매고 넘나든다. 등에 짐을 실은 당나귀들도 연신 딸랑이는 방울소리를 내며 거친 숨을 몰아쉰다. 도로가 없으므로 각 랏지에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나른다. 우리 짐 2개, 거의 50파운드를 지고 산을 올라가는 포터들을 보며, 작은 배낭에도 힘들어 하는 내가 미안해 졌다.

길 중간에 현지인들이 사는 집들이 많다. 어떤 때는 그들이 나와 낯선 이방인인 우리에게 "나마스떼"하며 인사를 건네기도 한다. '내 안의 신이 당신의 신에게 경배를 드린다'는 인사말 나마스테. 힌두교식 인사인데 그들 표정은 맑고 밝아 보인다. 가파른 돌계단의 시누와를 지날 때였다. 주민들이 그 긴 돌계단에 자라나는 잡초들과 말들의 배설물을 일일이 손으로 청소한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마음이 들었다. 경사면 산을 깎아 길을 냈던 사람. 돌을 깔아 길이 유실되지 않도록 만든 사람. 그래서 당나귀도 우리 같은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만든 마음이 보이는 듯하다. 쉽지 않은 돌계단 길의 연속이었기에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누어 걷기로 했다.

원정경험이 많은 김태미 대원이 점심때부터 많이 힘들어 한다. 몇 달 전 다쳤던 다리가 아직도 불편한지 끝도 없는 돌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버거워했다. 그러므로 고수미 대원과 함께 천천히 오라고 하고, 나를 비롯해 4명은 그날의 목적지 밤부의 랏지에 일찍 도착했다.

방을 배정받고 있으니 1시간 쯤 뒤에 여대원들이 도착했다. 몹시 지친 모습들이다. 휴식을 취하고 저녁식사를 하는데 김태미 대원은 아예 식사도 거르고 방에서 누워버렸다. 고도가 높아질 수록 랏지 시설도 열악해 진다. 날씨도 예측하기 힘들다. 높아질수록 고산병은 있기에 더 힘들 것이다. 그걸 잘 아는 가이드는 우리에게 "비스타리, 비스타리"라는 말을 자주했다. '비스타리'는 '천천히'라는 네팔어. 히터도 없고 방음도 잘 안 된 방들인데, 옆방 어디선가 앓는 소리가 난다. 히말라야 산행답게 몸살로 힘든 밤을 보냈나 보다.

오늘 아침도 날씨는 좋았다. 오늘은 뱀부에서 도반이라는 마을을 거쳐 데우랄리(3,230m 10,597ft)까지 가는 여정이다. 드디어 10,000ft 이상인 고산지대로 오르는 것이다.

가이드 디팍은 아침식사 때 걱정 어린 표정으로 "비스타리" 천천히를 외친다. 그리고 우리가 고소증을 잘 견디며 예정대로 운행을 하니 신기한가 보았다. 맘모스를 자주 오가고 겨우내 고산에서 스키를 탄 것이 고소적응에 도움이 된 것은 확실했다.

밤부라는 이름처럼 이곳에는 대나무숲이 많았다. 운이 좋으면 이곳에서 서식하는 히말라야 원숭이를 볼 수 있다는데 우리는 한 마리도 만날 수 없었다.

드디어 도반마을을 지나 히말라야라는 이름의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의 랏지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곳에서 체력이 좋은 론킴 부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이어 이영근 회장도 보내고 나는 걸음이 늦은 2명의 여대원들과 함께 데우랄리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천천히 걷고 사진도 찍으며 풍경도 감상하는 즐거운 산행길이었다. **〈계속〉**

가도 가도 끝없이 이어지는 돌계단. 하기환 동문이 지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포즈를 취했다.

안나푸르나 산속으로 가는 본격 트레킹에 나서기 전 선 촘롱 랏지에서 6명 대원과 포터들이 포즈를취했다.

해발 1만피트 근방에 있는 히말라야 마을. 많은 사람들이 이곳 카페에서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며 다음 여정을 준비한다.

A Half-Century Odyssey: My American Journey

My sister declared "I will take care of parents, you take care of your future"

권봉성
(문리대 지질학과 64)

Following is an article contributed by BS Kwon. His narrative unfolds as a captivating testament to his family's rich history, entwined with the legacy of Prime Minister DW Kwon. His journey from Seoul to the heartland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choices that shaped his American Dream, paint a vivid picture of resilience, familial bonds, and the enduring spirit of an immigrant's odyssey. - Editor's Note.

In the Golden State, our family of twelve came together to celebrate our rich history and the legacy.

Prime Minister & Lady Jang

OJ Jang(장옥정), a radiant and beautiful daughter of the court interpreter of Prime Minister DW Kwon(권대운) and the esteemed King Sukjong's Palace, embarked on a unique journey.

Sent to a Chinese Language School in Peking, she not only mastered the language but also gained insights into global business and trade from fellow students hailing from the Western World.

Upon her return, OJ Jang initiated a trading business, exporting Korean Ginseng to and importing Chinese silk from China. Her clientele included the Palace, establishing a connection with Prime Minister Kwon. Impressed by her talents, Prime Minister Kwon recommended her to become a court lady(궁녀). Eventually catching the eye of King Sukjong, OJ Jang became Lady Jang(장희빈).

Prime Minister Kwon with Lady Jang's assistance, spearheaded the Dynasty's economic redevelopment, establishing bank systems, minting the Dynasty's first coin(상평통보) and facilitating commercial loans to foreign traders. This collaboration led to King Sukjong's era becoming the most prosperous. In recognition of Prime Minister Kwon's retirement, King Sukjong granted him "All the land within your view from the top of the hill."

'Collaborator' Father

My father, YT Kwon(권용택), the 12th generation descendant, was born in 1913 in Mokchon, a small village near Chonan in Chung-Chung Province. An honor student, he received a Government Scholarship to Japanese Colleges, later teaching mathematics until the Korean War erupted in 1950.

In the crucible of ideological divisions, my father made a fateful decision to align with North Korea' s Communist Party. This choice would later cast a long shadow over our family's destiny. As the war's embers cooled, he found himself labeled a 'collaborator,' a term laden with stigma and consequ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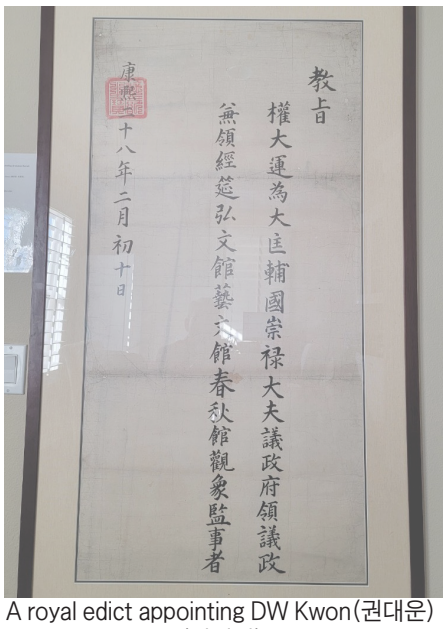
The aftermath of war brought about a harsh reality-my father became a 'fugitive.' This period was marked by the pervasive notion of the so-called guilt by association(연좌제), where the actions of one family member could cast a pall over the entire kin. Our family bore the weight of this collective judgment, facing hardships and discrimination due to my father's political alignment.

'Guilt by Association'

With my father hiding in a small hole beneath the cow barn floor to evade the watchful eyes of the police and neighbors with anti-communist sentiments, my sister JY(정윤) orchestrated a daring plan to secure a new identity and escape.

One day, she collected firewood from a nearby mountain, carried it on her head, and walked all the way to the city market. There, she traded it for a pair of cheap black rubber shoes for her fugitive father. During a dispute with the shopkeeper, she happened upon his wallet, securing his ID. Ingeniously replacing the photo on the shopkeeper's ID with her father's, he was now equipped with a new identity and footwear. Managing to escape to Pusan, father became a math teacher at a private high school owned by an old friend.

A few years later, a surprise midnight attack by CIA men resulted in the arrest of the long-chased 'fugitive,' placing my father in a jail in Seoul. The family moved to Seoul, and JY took on the responsibility of running errands to the jail for our father's well-being while my studying Geology in SNU.



A royal edict appointing DW Kwon(권대운) as Prime Minister(영의정).

Hotel 'Gangnam Style'

After serving a full term, my father became a freeman. He sold his portion of Prime Minister Kwon's land, except for the ancestral graveyard where 11 first sons of previous generations were buried.

My father and JH Shin, JY's husband, a successful businessman and congressman, combined their resources to build a 5-star hotel in Gangnam, the center of K-culture and a playground for the rich and famous. Unfortunately, both Mr. Shin and my father passed away from liver cancer, leaving JY as the sole owner and CEO of the hotel 'Gangnam Style', which later inspired the global smash hit by rapper Psy.

In the Pursuit of American Dream

In September 1970, armed with determination and a mere $200, I departed from Korea after earning a BS degree in Ge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My destination was the Colorado School of Mines, where the pursuit of a Ph.D. awaited. Full scholarships and a research assistant position awaited me, promising both academic and financial support.

As I embarked on this academic odyssey, I made a heartfelt promise to my tearful mother at Kimpo Airport-I would return in five years. Little did I know that the journey would unfold in unexpected ways, presenting me with critical decisions that would shape my future.

Upon completing my Ph.D., the crossroads appeared. My esteemed adviser, Dr. Pickett, recommended practical training before returning home-an opportunity at the Amoco Research Center in Tulsa, Oklahoma. The decision weighed heavily on my shoulders, torn between honoring my promise to my mother and heeding the counsel of my profess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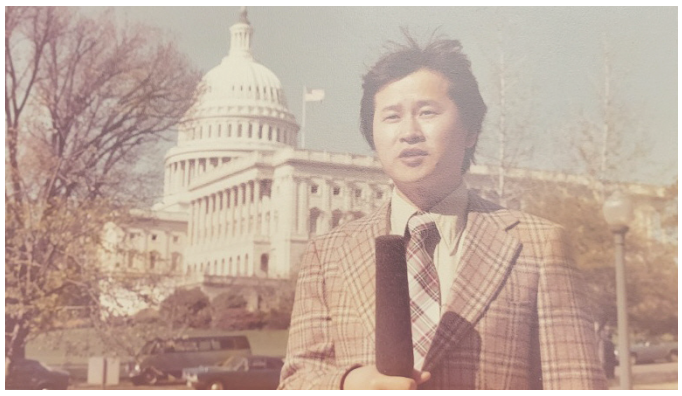
Enter JY, my hero and confidante. With unwavering support, she declared, "I will take good care of parents, and you take good care of your future." With these words, the trajectory of my life took an unexpected turn. What started as "practical training" evolved into a fulfilling 20-year career, as I embraced U.S. citizenship, married, and raised three wonderful children.

The legacy of Prime Minister DW Kwon carries o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nd from 한성 to 라성, weaving a narrative of resilience, familial bonds, and the enduring spirit of an immigrant's journey.

49년 언론인 외길...한인사회 성장 함께 했다

원로 언론인 김건진 동문(문리대 영문 62)

미주 한인들, 특히 이민 1세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주 중앙일보가 올해로 창간 5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74년 창간 당시 걸음마 단계였던 미주 한인사회에 올바른 정론을 세워 한인이민사에 한 획을 긋게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이 김건진(영문62) 동문이다.



김건진 동문은 1977년부터 6년간 중앙일보 동양방송 워싱턴DC특파원을 역임했다. 당시 연방의사당이 보이는 곳에서 TBC뉴스 리포팅을 하고 있다. 당시 나이는 34세 정도다.

지난 2023년 여름 김건진 동문이 팔순잔치를 가졌다. 왼쪽부터 아들 김수혁씨, 부인 김순옥 여사, 김 동문, 딸 김경림씨.

1970년대 LA이어 워싱턴DC 특파원 역임
LA미주 중앙일보 창간 요원에서 사장까지

1974년 서울 중앙일보에서 국회 출입 기자였던 김건진 동문은 10월의 어느 날 부장(데스크 기자)의 호출을 받았다.

야당 담당으로 정신없이 뛰어 다녔고 그날 마침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인터뷰하고 들어온 직후에 뜻밖에 인사 발령을 받았다. 데스크는 "미국 특파원 발령이 났으니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0월31일 미국행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김 특파원은 1965년에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대략 9년차 기자였지만 비행기 안에서 내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까 골똘히 생각했다.

막상 미국에 도착하니 중앙일보 미주판 창간 작업에 투입됐다. 중앙일보의 첫 LA특파원 겸 미주판 창간 요원이었다. 중앙일보 입장에서도 미주 서부를 맡은 LA상주 특파원은 처음이었다. 당시 워싱턴DC에는 김영희 특파원이 있었다.

당시 LA에는 이미 한국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고 중앙일보는 한국판과 미주판을 합쳐서 총 8면을 발행했다. 중앙일보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울 본사 출신 중견 기자가 파견와 미국에서 처음으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후배들을 훈련시키고 이끌던 전통이 있었는데 김건진 동문이 그런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것이다.

김 특파원은 3년 후 워싱턴DC특파원으로 부임했다. 당시 중앙일보는 TBC 동양방송도 함께 운영했기에 김 특파원은 TBC특파원도 겸했다. 워싱턴 DC에서 6년을 더 근무했다. 카터 행정부때여서 워싱턴 특파원의 역할이 컸다. 당시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내 인권문제, 또 박동선 사건으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고 한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을 때다. 그는 빠른 정보와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국방성 등을 오가며 현장 취재에 진력했다.

본사 귀임 후 김건진 동문은 불과 5년만에 다시 LA행 여객기를 타야 했다. 이번에는 LA지사장이 됐다. 미국은 한국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맹인데 특히 남가주와 LA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해 그 중요성이 남달랐다.

김 동문은 "11년만에 와보니 한인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쑥쑥 크는 것이 보였다. 인구가 느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면서 "특히 이민 오는 가정이 영어신문을 볼 정도는 아니어서 이민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한글로 신문을 내는 것이 무척 중요했다"고 회상했다. 지금과 달리 한인 사회나 한인 경제력이 튼튼하지 않았고 한인 사회 구심점으로도 한인 언론사는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영향력에 비해서 신문 제작부터 경영까지 매우 어려웠고 한국 본사에서는 안정된 중앙일보 LA지사를 위해서 '구원 투수'격으로 사내에서 미국 경험이 가장 많고 능력 있는 김 동문을 또 다시 파견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 본사 이종기 사장의 주문은 '확 뒤집어 놓으라'는 큰 주문을 했다.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을 다짐 받았다. 당시 LA중앙일보는 올림픽 사옥 시절이어서 사세가 경쟁사에 비해서 밀리는 상황이었다. 사무실이 얼마나 낡았는지 때 아닌 비가 왔는데 천정에서 비가 줄줄 새서 기자들이 양동이를 사무실 여기저기에 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시 이종기 사장이 LA를 방문했을 때 김 지사장이 그를 적극 설득해 사옥을 옮기기로 합의했고 지금의 윌셔플레이스 건물을 사서 이전했다. 당시 김건진 LA지사장은 1966년 건축해 IBM이 쓰던 3층짜리 건물이어서 '앞으로 20년은 튼튼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90년 김 동문은 서울로 다시 귀임했다. 그 사이 외신부장, 국제국장을 역임했고 1993년~94년에는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국제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아울러 중앙일보에서도 논설위원(1990년),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1994년에는 뉴스위크 편집국장, 95년에는 시사지 담당국장으로 활약했다. 특히 1994년 12월에는 한국 언론인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언론계는 물론 정치계 사회계에서 권위있는 중견기자 모임인 관훈클럽 총무로 선출됐다.

1997년 또 운명처럼 LA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번에는 LA지사장이었는데 이번에는 LA지사장 겸 미주본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서울 중앙일보에 새로 부임한 홍석현 사장이 남가주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인물로 김 동문을 선택한 것이다. 덕분에 김건진 사장은 1998년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치고 2001년부터는 부회장으로 2년, 이후 고문으로 1년간 재임하며 한인사회의 비약적인 성장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퇴임 후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남가주에 남았다. 1남(수혁)1녀(경림)가 대학부터 미국에 살면서 정착했기 때문이다.

2003년 라디오코리아를 바로 인수한 김영옥 변호사와 손태수 회장 부부가 그를 찾아왔다. 인수한 지 얼마 안된 라디오코리아의 기초를 쌓아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2004년부터 1년 넘게 라디오코리아 사장을 맡아 기틀을 잡아줬다.

김건진 동문은 "몇 년전 타계한 이건희 회장이 원래 중앙일보 이사였다. 미주 한인사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면서 "그가 이병철 선대 회장의 후계자인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 이사는 LA직원들과 일대일 개별 면담할 정도로 LA에 애정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 동문은 "많은 한인 사업가들이 있었지만 한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로 부를 일군 수많은 한인 사업가들의 성공 신화에 함께 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특히 중앙일보가 이들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보람됐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 출신인 김건진 동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도 불굴의 의지와 부지런함으로 배움의 길을 개척, 서울로 올라와 고교부터 아르바이트 등 고학으로 휘문고를 다녔고 서울대 문리대 영문과에 장학생으로 입학,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인간승리 드라마의 주인공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원고 모집합니다

글의 양 500단어(글자수 2000자) 내의 글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snuaausa17@gmail.com

**미주 동창회는 미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29개 지역 동창회의 연합체입니다.
각 지역 동문들이 직접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동창회보를 통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서울대인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미주 동창회의 사명입니다.
알리고 싶은 얘기는 주저 없이 보내주십시요. 지역 소식은 물론 화제의 동문, 원로 초대석,
나의 건강 비결, 취미, 여행기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워싱턴DC 지부

워싱턴DC 지부 동문들이 지난해 12월15일 연말 모임을 갖고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치 · 유머 · 웃음꽃 … "만나면 10년은 젊어져요"

2000학번대 젊은 동문 6명에 장학금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부터 버지니아주 스프링 필드 골프&컨트리클럽에서 워싱턴DC 지부 동문들과 가족들의 연말 모임이 열렸다.

지난 정기 이사회에 이어 이번 모임에도 90세 넘으신 선배님들을 모시고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오랜만에 고령의 선배님들이 많이 참석해주셨다.

또한 이날 모임에서는 6명의 동문 및 동문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젊은 동문인 김준수(기계07), 박기현(외교 08), 김미연(외교09), 백승하(물리 11), 김지인(기악 15) 동문이 장학금을 받았다.

재치 있는 사회자들의 유머 넘치는 진행으로 모임 내내 동문들 사이에서는 웃음 꽃이 피었으며 중창 합창단의 공연과 게임을 통해 동문 간의 유대를 높이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취재=한정희 편집위원(미대81)

동문 중창 합창단이 갈고 닦은 노래 솜씨로 큰 박수를 받았다.

하트랜드 지부 동문들이 지난해 12월3일 배규영, 오명순 동문 부부 댁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짧은 연습시간을 가진 후 크리스마스 찬양 경연을 하는 동문들.

동문들이 들려준 '나의 이야기' … "뭉클하고 감동적"

하트랜드 지부

배규영 동문 집서 연말 모임
팀 별 캐럴 경연 '배꼽 잡아'

하트랜드 지부 동문들이 지난해 12월 3일 배규영(사대 68), 오명순(가정대 69) 동문 부부 댁에 모여 연말 모임을 했다.

20명 정도의 동문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여러 선배님들의 수고를 덜고자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모두들 맛있는 디저트를 들고 와서 디저트만으로도 어느 고급 호텔 부페 못지 않게 차려놓고 즐겼다.

이후 한 분씩 돌아가며 2023년 가장 즐겁고 인상 깊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진심어린 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참 뭉클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했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은 크리스마스 찬양곡 경연이었다. 네 개팀으로 나눠 크리스마스 찬양곡을 나눠주고 잠시 팀별로 연습한 후 경연을 했는데 그 짧은 10-20분 사이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습을 했는지 노래는 물론 율동과 연기, 소품까지 들고 노래해 다들 배를 잡고 웃었다. 1절까지 부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어떤 팀은 끝날 듯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내지 않는 집요함으로 4절을 다 불러서 동문들을 요절복통하게 했다.

두 팀은 자신들의 공연을 비디오로 담았으니 다른 동문들도 유튜브(https://youtu.be/vG01K3zAIl0?si=ZqcjVS1ertRdADKp) 영상을 통해 구경할 수 있다. SNUAA Heartland Christmas Party 2023를 치면 영상이 바로 뜬다.

글 · 사진=임소연(음대 91)

휴스턴 지부

휴스턴 동창회가 지난해 12월16일 정기총회 및 연말 파티를 열고 동문들 간의 훈훈한 정을 나눴다.

56학번부터 04학번까지 "만나면 좋은 친구"

김정환 회장 등 신임 임원진 첫 주관 행사
7년여 수고한 경우진 장학위원에 감사패

서울대학교 휴스턴 동창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가든에서 2023년 정기총회 및 연말 파티를 개최했다.

김정환(공대 80) 회장과 김건호(공대 91) 부회장 등 신임 임원진이 처음 주관한 이날 행사는 70여명의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이뤄졌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공식 일정이 다소 주춤했던 그간의 아쉬움을 씻어내기에 충분했다. 또한 56학번 선배로부터 04학번 후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동문층이 참석, 세대를 아우르며 다 함께 교가를 제창하는 훈훈한 모습이 연출되었다.

신임 이호성(공대 72)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동안 있었던 동창회의 각종 사업 실적 및 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결과 보고가 있었다. 또한 7년 여간 장학위원으로 수고해준 경우진(공대 92) 장학위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30 - 40대 젊은 동문들의 참석이 많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깊었는데, 특히 '글로벌 공대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승화(공대 03) 동문은 자기 소개 시간을 통해 미국 내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서울대 동문 파워가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포부를 밝혀 선후배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춤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문들.

김정환 신임회장(왼쪽)과 감사패를 받은 경우진 장학위원.

이날 행사에는 윤건치 한인회장도 배우자 윤찬주(문리대63) 동문과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인사를 통해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빙고게임, 퀴즈게임 등 다채롭게 준비된 프로그램을 즐기며 선후배 다같이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3시간 여의 행사를 모두 마친 동문들은 이른 새해 인사를 나누며 모두들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발길을 돌렸다.

따뜻한 날씨 덕에 겨울엔 북쪽 동문들도 많이 와

플로리다 지부

새 회장 윤기향 동문 집서
동문 가족 모여 송년 모임

플로리다 동문들이 지난해 12월15일 2024년부터 신임 회장을 맡은 윤기향(법대 65) 동문 집에 모여 송년 모임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동문과 가족 18명이 참석해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담소를 나눴다.

탬파나 올랜도에 있는 동문들은 멀어서 오지 못하고 남부쪽 동문들이 주로 모였는데 윤기향 동문의 집은 마이애미 북쪽 팜비치 카운티에 있는 보카 라톤 지역에 있다.

플로리다는 미국 최고의 은퇴지로 알려진 것처럼 겨울이면 북쪽 지역 은퇴 동문들이 내려와 따뜻한 태양 아래에서 푸른 하늘과 파란 바다를 즐기며 몇개월을 보내곤 한다.

플로리다 동문들이 지난해 12월15일 보카 라톤 지역에 있는 윤기향 동문 집에 모여 연말 모임을 하고 있다.

뉴욕 시니어 동문 모임인 골든 클럽은 지난 3년간 1월말이면 10명 이상이 그룹 투어로 와서 골프 라운딩을 즐기다 갔고 북동부 지역은 물론 남가주에서도 몇몇 동문들이 가끔씩 찾는다.

특히나 더운 여름이면 플로리다 동문들도 시원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 플로리다를 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는 여름에는 거의 모이지 않고 겨울이면 바빠진다.

이날 모임도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안부 인사를 하고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소회를 얘기하면서 담소를 나눈 후 서울대 동문 모임이 늘 그렇듯 유익하고 보람있는 알파가 빠지면 안될 터.

한국전에 참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랜 기간 참전용사 관련 헌신적인 커뮤니티 서비스로 한국전 베테런스 특별회원이 된 이영(공대 59) 동문이 베테런스 행사 참여에 대한 설명과 초대 계획을 전했다.

또한 신개념 메신저 Zappy(재피) 앱에 대한 소개와 시범도 있었다. 재피는 실제 친구와 영상통화, 채팅은 물론 AI(인공지능)와도 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신저인데 공동창업자가 동문 가족이다.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지부 장학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장학금을 어떻게 전달할 지도 화제에 올랐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다시 하기로 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의 얼굴이 환하니 예뻐보이기까지 했다. 좋은 동문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즐겁다.

글 · 사진=최희덕(사대 68)

지난 1월 7일 남가주 UC 어바인의 ‘바클레이 시어터’에서 열린 신년음악회는 750여 동문 가족이 1,2 층을 꽉 메워 대성황을 이뤘다.

동문 금난새와 함께 한 신년음악회 ‘대성황’

750석 가득 메운 동문들
지구촌 난민돕기 모금도
라스베가스에서도 공연

이윤석(음대 11) 동문의 하모니카 연주. 앵콜이 쏟아지자 60년대 추억의 명곡 ‘문리버’를 선사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지난 1월 7일, 일요일 오후 좀 쌀쌀한 날씨다.

마에스트로 금난새(음대 66) 동문이 김종섭(문리대 66) 서울대 총동창회장의 초청으로 남가주 UC 어바인 주립대학 캠퍼스에 있는 Barclay Theatre에서 2024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지구촌 전쟁난민을 돕기 위한 나눔 음악회가 이날 콘서트의 취지였다.

한국서 연평균 120회의 공연을 갖는다는 금난새 지휘자는 바쁜 스케줄을 쪼개 남가주 동문들을 찾았다. 금 동문은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기부철학에 공감, 매년 함께 행사를 갖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코리아-LA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금 동문은 음악을 말로 표현해 청중들의 이해를 돕는 독특한 기술을 가진 마술사. 750석을 꽉 채운 비교적 큰 무대였지만 마치 내 집에서 음악회를 열고 있는 것 같은 정겨움과 편안함이 가득했던 시간이었다.

공연은 그리그의 ‘홀베르그 모음곡’과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등 순으로 진행됐다. 금 동문의 콘서트는 ‘해설이 있는 음악’으로 정평이 나있다. 중간 중간 재치있는 해설이 곁들여져 클래식에 문외한이라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매직을 연출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편안한 공연이 완성되지 않았나 싶다.

디앙의 ‘탱고 앤 스카이’를 연주할 때는 탱고를 추며 지휘를 해 관중석으로부터 폭소가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하모니카 연주. 이윤석(음대 11) 동문은 무디의 스페인 환상곡 ‘톨레도’를 하모니카로 연주해 관객들을 흠뻑 매료시켰다. 앵콜이 쏟아지자 영화 ‘티파니에서의 아침을’의 OTS ‘문리버’를 선사, 훈훈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작곡과 출신인 그는 노르웨이에 유학, 세계적인 하모니카 대가인 지그문트 그로분을 사사해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영화음악을 연주해 관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준 김기경(서울대 음악박사) 피아니스트는 절대음감의 소유자. 관중석으로부터 음을 듣고는 이를 즉석에서 피아노 건반으로 옮겨 찬탄을 자아냈다. 지익환(음대 08) 동문의 ‘탱고 앤 스카이’ 연주는 클래식 기타의 진수를 보여줘 진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날 공연에서는 ‘닥터 지바고’와 ‘러브 스토리’ 등 신청곡을 받아 관중들의 흥을 돋우었다. 객석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청중과 소통, 클래식의 고정관념을 깨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마지막 무대는 김기경 피아니스트의 반주에 맞춰 부른 ‘나의 살던 고향.’

750여 동문 가족이 한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이민자들의 가슴을 촉촉하게 적셨다.

행사를 주관한 김경무 남가주 총동창회장은 “이처럼 많은 동문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라며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신년 음악회는 첫 행사인데도 불구, 동창회 임원진의 헌신 덕분에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실무를 총괄한 이호진(간호대 74) 동문을 비롯해 이종묘(간호대 69), 안혜정(생과대 77), 이안순(간호대 78), 이상호(사대 80), 김성옥(간호대 81) 동문 등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금난새 지휘자는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 전시회 CES가 열리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축하공연을 가졌다. 공연은 1월 9일 컨벤션센터에 인접한 ‘더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취재=양수진(간호대 80)

금난새(가운데) 지휘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동문들. 김종섭 한국 총동창회장과 노명호 미주 동창회 전 회장, 김경무 남가주 동창회장, 김상찬 전 남가주 동창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계 최대의 하이테크쇼 CES를 맞아 라스베가스에서도 축하공연을 가졌다. 공연은 ‘더 라스베이거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미대

미술대학 남가주 동문회의 신년모임이 지난 1월 15일 LA 소재 S-Village에서 열렸다. 20여 명이 참석해 동문전 및 여러 안건에 대한 토의를 했으며 점심 식사 후 청명하고 포근한 날씨에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3시간 넘게 담소를 즐겼다. 이원식 회장은 2024년도에도 연임됐다.

사범대

사범대학 남가주 동문회의 신년 모임이 지난 1월 17일 LA한정식당 용수산에서 열렸다. 차종환 동문과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한 동문들이 힘찬 전진을 기대하며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동문회 덕분에 귀도 입도 마음도 즐거웠던 하루"

문리대

공들여 준비한 김종하 회장 만장일치 1년 더 연임키로

남가주 문리대 동문들이 지난 1월13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신년 하례회를 열고 함께 모여 새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해설을 곁들인 작은 음악회는 눈과 귀를 즐겁게 했을 뿐 아니라 모임의 품격을 높였고 김종하 (영문과 85) 동창회장의 음대 동기가 지인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온 스테이크 뷔페는 여느 스테이크 하우스 저리가라할 만큼 맛있었다.

입담 좋기로 유명한 문리대 동문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끝이 없어 김종하 회장이 모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문리대 모임 전통을 깨고 그토록 마이크를 주지 않으려 했음에도 틈새를 비집고 마이크를 잡은 동문들이 풀어내는 '썰'은 때로는 미소를,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게 했다.

모임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때는 모임 장소를 대여해준 건물주가 동문은 아니지만 동문의 친구라며 6년근 홍삼을 달인 건강식품 한박스까지 챙겨줬다.

그리고 김종하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축사를 한 손님은 유홍림 모교 총장과 김종섭 모교 총동창회장이었다.

거의 완벽한 준비였고 동문들 모두 편안했고 즐거웠고 분위기는 당연히 정겹고 훈훈했다.

지난 1월13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크에서 열린 남가주 문리대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에서 김종하 현 회장이 동문들의 만장일치 추대로 1년 더 연임하기로 했다.

동문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건물이 있는 찻길에서부터 풍선을 달아 들어오는 길을 표시하고 솜씨좋은 진행으로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끌고 작은 음악회 연주자로 무아지경 드럼을 치고 동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청소 뒷정리까지 끝내는 그가 1년만 회장을 한다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었을 거다.

그가 공들여 준비한 작은 음악회. 그는 "실황 중계로 5000만 명의 세계인이 감상하는 글로벌 새해 대표 행사 빈 필의 신년음악회처럼 문리대 격에 맞게 음악회를 하고 싶었다"며 남가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실력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최희선(음대 92) 동문과 첼리스트 김원선(음대 05) 동문을 초청했다.

연주곡은 집시 춤곡, 하바네라, 탱고 등 밝고 경쾌한 춤곡들로 꾸렸고 작품 배경을 설명하고 동문들이 손뼉으로 네 박자 리듬을 치면서 '손뼉 협연'을 하게 한 최희선 동문은 문리대가 아님에도 입담을 뽐냈다.

문리대 모임에 공부하는 시간이 빠지면 안될터. 애틀랜타 중앙일보 사장으로 가 있는 이종호(동양사 81) 동문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자신의 저서 '이민자를 위한 시민권 미국 역사'에 바탕한 '알아두면 쓸 데 많은 심심풀이 미국 역사 상식'을 특강했다.

신년하례회 프로그램 말미에 적힌 글이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내내 건강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웃을 일이 있든 없든 매일 매일 많이 웃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종하 동창회장(맨 왼쪽)이 바이올린 최희선, 첼로 김원선 음대 동문과 함께 연주를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가능하면 마이크를 주지 않으려는 김종하 회장의 노력을 뚫고 '한 말씀' 하고 있는 김상찬 전 문리대 동창회장.

이기우 동문의 포토에세이

레이크 루이스, 와~ 빨간색 기차다

워낙 여름 보다는 겨울 풍경을 선호하게 되어 몇 년을 캐나다 록키로 겨울이면 사진기 장비를 짊머 지고 가곤 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신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캐나다!

여름에는 푸른 에메랄드 빛 호수, 겨울에는 얼음과 눈으로 꽁꽁 언 아름다운 백설의 절경으로 변하는 루이스 호수(Lake Louise)는 '캐나디안 로키(Canadian Rocky)의 보석'으로 불리는 밴프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안에 있다. 루이스 호수 인근에는 만년설과 빙하가 녹아 생긴 호수들, 가문비 나무, 소나무 등의 침엽 수림이 어우러져 자연이 만들 수 있는 비경을 보여 준다.

사진을 찍을 때는 찍기 전에 어떠한 사진을 찍을 것인가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번에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모란츠커브(Morant' s Curve) 라는 곳, 설경으로 멋지게 배경을 해주는 곳에 강물이 굽이지며 흐르는 곳에서 갑자기 달려나오는 빨간 기차가 오는 광경을 찍으려고 계획을 했다.

이 곳 우아한 조그만 도시, 레이크 루이스에서 묵은 날 밤새도록 눈이 내렸다. 활짝개인 아침 일찍 바퀴가 다 들어갈 만큼 쌓인 눈길을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목적지에 도착하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길건너 가드레일을 넘어서 삼각대를 펼치고 사진 찍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All Aboard – Christmas Train! 촬영 장소: Morant's Curve, Lake Louise, Canadian Rockies, Banff National Park, 2015년 12월 3일

그러나 겨울에는 화물기차만 다니고 기차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 몇시간은 족히 기다리고 있자니 손과 발, 몸 전체가 꽁꽁 얼어갔다. 아침도 먹지 않고 커피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몸을 녹일 수 있는 길은 입으로 손을 호호 불거나 발을 움직이며 얼은 발을 녹이는 길 밖에 없다.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사람들이 엄지척을 하며 응원을 해주기도 하나 하도 춥고 배도 고파서 "그냥 돌아갈까?" 하고 망설거리기를 몇번! 그래도 꾸욱~ 참고 기다렸다. 거의 3시간은 족히 지난 듯. 그동안 트럭이 철로길 위로 지나 갔다. 다시 30분 경과. "에이!" 하며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멀리서 들리는 기적 소리!!! 뜨거운 커피보다 더 나의 마음과 몸을 녹여주는 기적 소리!

얼마 후 저 멀리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철로 위, 나무 숲사이로 철커덕 철커덕 소리내며 빼꼼히 내민 기차의 얼굴. 아.. 빨간색이네. 신나! 오래된 기차로 몽실 연기도 난다.

나는 계속 사진 찍기에 바빴다. 가까이 오는 기차 속에서 컨덕터가 나를 보더니 환히 웃으며 빵빵 소리내며 연기도 더 올려 준다. 나도 왼손으로 계속 셧터를 누르며 오른손을 번쩍 올려 흔들어 주었다. 나는 어느새 13살의 소녀가 되었던 것이다.

한 15분 이상을 찍었다. 지나가는 화물차 중에서 'LG', 'HYUNDAI' 싸인이 찍힌 화물칸을 볼때는 양 볼에 구스범프를 느끼며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를 마음 속으로 부르고 있었다.

지금 지나간 기차의 다음 정거장은 영화 '닥터 지바고'의 이별장소 촬영지 '레이크 루이스 기차정거장'이다.

이기우(문리대 물리학과 67)

새해 덕담·작은 음악회…화기애애한 동문들

지난 1월13일 열린 신년 교례회에 모인 뉴잉글랜드 동문들. 양나래 동문이 작은 음악회를 준비해 동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뉴잉글랜드 지부

신년 모임 60여명 참석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최진민, 공대 71)는 지난 1월 13일 벌링톤에 위치한 세븐 스프링스 클럽하우스(Seven Springs Clubhouse)에서 동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청룡의 해, 갑진년을 맞아 새해인사와 덕담 나눔으로 시작한 이날의 동문 모임은 1부 순서로 환영사, 교가 제창, 참석자 소개 및 모교 홍보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에는 양나래(음대 08) 동문이 '작은 음악회 - 노래의 날개 위에'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름다운 우리 가곡과 오페라 '메리 위도우(Merry Widow)'를 소개하며 멋진 노래를 선사해 노래를 동문들의 열띤 앵코르 요청을 받았다.

이어 동문회 소모임 및 장학사업 소개, 2023년도 동문행사 회고 및 2024년 운영계획 발표가 있었으며, 모교 트리비아 경품 추첨을 마지막으로 모임을 마쳤다. 동문들은 입을 모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며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글=이경애(인문대 73)**

“팬데믹 거치면서 작은 지부들 타격 커 아쉬워”

오레곤 지부 박희진 회장
플로노믹스에서 컨설팅
“은퇴 후 인문, 역사 공부”

박희진(오른쪽), 문혜선 동문 부부.

오레곤 지부 회장을 맡고 있는 박희진(농대 78) 동문이 최근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가 됐다.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박 동문은 캠퍼스 커플로 문혜선(자연대 79) 동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

박 동문은 한국과학원을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로 유체계통설계실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일했다. 당시 한국형 원자로를 만들겠다는 연구소 분위기와 뜨거운 열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동문 부부는 1989년 미국에 왔다. 박 동문은 미시건대학(앤 아버) 기계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학교와 회사를 거쳐 현재는 플로노믹스(Flonomix)에서 HVAC분야에서 CFD(전상유체해석)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은퇴 후에는 인문, 역사, 사진, 비디오편집, 에퀴티 투자를 더욱 공부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자연대 79학번인 부인 문혜선 동문도 미시건 대학에서 미생물학과 박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재직하던 OHSU(Oregon Health Science University)에서 지난해 은퇴했다.

문 동문도 역시 앞으로 인문, 역사를 좀 더 공부할 포부를 갖고 있고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한인을 위한 의료 통역(Medical Interpreter) 봉사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두 사람의 아들은 이미 장성하여 가정을 꾸렸고 현재는 구글에서 일하고 있다. 슬하에 손녀, 손자가 있어 박 동문 부부는 이제 어엿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년~15년 정도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은퇴 생활을 즐길 계획이다.

박 동문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를 이끄는 회장단 임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도 전했다. 그는 “이런 안팎 상황에 동문회를 이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며 “동문 선후배간의 세대 차이가 점점 커짐과 동시에 숫자가 점점 많아져, 과거에 비해 응집력이 떨어진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뜩히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규모가 작은 동문회 지부, 예를 들어 오리건 지부 같은 곳은 타격이 매우 심했다”며 “몇 년 사이에 많은 동문이 나가고 들어오고, 대화의 연결 고리가 많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선배들이 젊은 후배 동문을 동문회에 참여시키려 노력했지만, 대부분 직장 생활 등으로 한창 바쁜 때이기에 동문회는 아무래도 2차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동문은 앞으로 동문회는 시간이 되는 동문들, 즉 은퇴를 앞둔, 허리에 해당하는 동문들이 선후배 단합을 위해 보다 더 앞장서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골드 이사’ 샌디에이고 이면기 동문
“동창회 봉사와 만남은 항상 좋았다”

이면기(오른쪽) 동문 부부.

샌디에이고 이면기(공대 64) 동문이 미주동창회 종신이사(골드)가 됐다. 이 동문은 캠퍼스 커플로 부인 염영은(약대 69) 동문과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이 동문은 모교 졸업후 1970년 일리노이주립 어바나샴페인에 진학해 1972년 화학공학과로 석사를, 1974년 박사를 받았다. 이후 바텔 컬럼버스 연구소, US아미 연구소, 아모코 케미칼 리서치 센터 등을 거쳐 SK케미칼 연구소 석유화학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동창회 관련 봉사도 시카고 서울대 총무를 비롯해 재미 서울 공대 화공과 동창회장으로도 활약했으며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이사를 맡았다. 은퇴 후 시카고에서 샌디에이고로 이주했다.

이 동문은 “평생을 연구와 일로 바쁘게 살았지만 서울대 동창회나 과총 등에서의 봉사와 만남이 항상 좋았다”며 “앞으로도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돕겠다”고 말했다.

장병희 편집위원

종신이사 속속 합류
박용화 · 손재옥 ‘골드’

권봉성 동문.

손재옥 동문.

새해를 맞아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에 새로운 종신이사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다. 지난해 이면기(공대 64) 동문이 종신이사 골드가 된 것에 이어 연초부터 미시간의 박용화(의대 52) 동문, 필라델피아의 손재옥 전 미주동창회장(가정대 77)이 종신이사 골드가 됐다.

이어서 남가주 권봉성(문리대 64) 동문이 종신이사 실버, 오레곤 지부 박희진(농대 78) 동문과 남가주 지부 정균희(의대 65) 동문이 종신이사가 됐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백행남(문리대 화학과 60) 워싱턴DC서 우래옥 운영. 1월4일 별세(82세)
한상호(의대 56) 시카고 지부 전임 회 장박연희(간호대 64) 동문 부군. 1월5일 별세
최영화(음대 50) 1월8일 별세(93세)
전정극(기계공학51) 전 모바일이동통신 대표. 지난해 11월 18일 별세(93세)

동창회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부터
연 100 달러 … 동창회보 제작과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긴요하게 쓰입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 Tel: 818-395-1967 | Email: snuaausa17@gmail.com

연준이 뭐길래 … 세계가 미국 통화정책에 주목

‘세계의 경제 대통령’ 연준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본다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가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 몸살을 앓는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뉴욕의 동문 모임인 골든 클럽이 지난 12월초 경제학자인 플로리다 윤기향(법대 65) 동문을 초청해 연준의 탄생과 조직 그리고 기능과 역할 등 연준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줌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해 11월호에 실린 연준의 탄생과 조직에 이어 연준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윤 동문은 최근 세계 경제 이슈를 시와 소설, 신화와 유명 회화를 인용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 쓴 영문 서적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Economics Meets Literature’를 펴내기도 했다.

윤기향
(법대 65)

워싱턴 DC의 연방준비제도 전경.

연준 최대 사명은 물가 안정…목표 인플레이션율 연간 2%
금융기관 재무성증권 매입하면 통화량 늘어 금리 인하
반대로 매각땐 가용자금 줄어든 은행들 금리 올리게 돼

4. 연준의 목적과 통화정책 수단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과 금융조건을 조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외에 부수적인 목표로 이자율의 안정, 자본시장의 안정 및 환율의 안정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은행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며 이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율을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2%이다. 연준은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 개의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도 한다.

연준은 통화량 및 금융조건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1) 공개시장조작 (2) 할인정책 그리고 (3) 지급준비금정책이라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한다.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s)은 다양한 금융자산이 존재하고 금리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은 연준이 자본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국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함으로써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채는 주로 재무성이 발행하기 때문에 재무성증권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단기(만기가 1년 이하) 재무성증권(Treasury bills), 중기(만기가 1년부터 10년 이하) 재무성증권(Treasury notes), 그리고 장기(만기가 10년부터 30년 이하) 재무성증권(Treasury bonds)을 포함된다. 연준은 막대한 규모의 재무성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은행들도 투자의 일환으로 재무성증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먼저 연준이 통화량을 늘리려고 할 때 연준은 공개시장매입을 추구한다. 공개시장매입이란 연준이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성증권을 매입하겠다는 제안이다. 예를 들면 연준이 10억 달러 규모의 재무성증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면 연준은 공개시장조작 당시의 재무성증권 시세를 감안해서 적절한 가격을 제시한다. 그럴 경우 은행들 (Citibank라고 하자)은 그러한 가격으로 재무성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좋은 투자가 된다고 판단하면 기꺼이 연준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연준은 이를 결제하기 위해 Citibank가 연방준비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준예치금 계정에 10억 달러를 입금한다. 이제 Citibank는 10억 달러의 추가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성과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경제 전체에는 얼마만큼의 통화량 증가 효과가 나타날까? 통화창출모형에 의하면 은행의 준비금이 늘어날 경우 통화창출에서 승수효과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미국의 통화승수는 약 2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연준이 10억 달러의 공개시장매입을 할 경우 경제 전체에 약 20억 달러의 통화가 창출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같이 연준이 확대통화정책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는 공개시장매입에 나선다. 이제 금융권에 돈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여유 자금이 생겨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반대로 연준이 통화량을 줄이려고 할 경우 공개시장매각을 추구한다. 공개시장매각은 공개시장매입과는 정 반대로 작용한다. 연준은 일정한 규모(예를 들면 10억 달러)의 재무성증권을 적절한 가격으로 공개시장에서 매각하겠다고 제안한다. 은행들(BOA라고 하자)은 그 가격에서 재무성증권을 매입하는 것이 수지맞는 투자라고 판단하면 기꺼이 연준의 제안에 응할 것이다. 이제 연준은 BOA가 연방준비은행에 가지고 있는 지준금예치계정에서 10억 달러의 돈을 인출할 것이다. 그럴 경우 BOA의 유동성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출 여력도 줄어들게 된다. 통화승수효과에 따라 통화량은 약 2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된다. 은행의 가용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연준이 긴축통화정책을 추구하려고 할 때에는 공개시장매각에 나선다.

연준이 사용하는 또 다른 통화정책은 할인율정책(discount policy)이다. 할인율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때 중앙은행이 이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의다. 할인율정책은 연준의 통화정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정책이다. 사실 연준이 창설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수시로 발생하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인율정책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금융위기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통화정책이다.

할인율정책은 공개시장조작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통화 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통화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개시장조작만큼 정교하지 못해 많은 선진국, 특히 미국에서는 공개시장조작만큼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할인율정책의 최종 효과가 중앙은행이 의도한 방향대로 나타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위해 할인율을 인하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리는 결정은 금융기관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느냐 마느냐는 금융기관의 결정 사항이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돈을 빌려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공개시장매입 · 매각 통해 원하는기준금리 조정

이다. 이는 서양 속담에 "당신은 말을 물가로 끌고 갈수는 있지만 말로 하여금 물을 마시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공개시장조작의 경우 중앙은행이 팔거나 사려는 재무성증권에 대해서 좋은 가격 조건을 내걸면 은행들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제안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의도한 대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할인율정책이 공개시장조작만큼 효과적이지는 않더라도 할인율정책은 유동성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한 통화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되었을 때 연준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었다. 할인율정책은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지급준비금정책(reserve requirements)은 위에서 논의한 공개시장조작과 할인율정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 그들이 수취한 예금액 중 일정한 부분을 법정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준비금정책이라고 한다.

지급준비율(required reserve ratio)은 은행들이 수취한 예금액 중 법정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하여야 할 비율이다. 예를 들면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은행들은 수취한 요구불예금 중 10%를 지준예치금으로 금고에 보관하거나 중앙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준예치금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원래 법정지급준비금제도는 은행이 도산하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에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제도이다. 은행들은 예금으로 수취한 자금을 가지고 대출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해서 수익을 낸다. 그런데 법정지급준비율이 10%라고 한다면 예금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묶이게 되고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만큼 대출 여력이 떨어지고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정책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대출이나 투자를 위한 은행의 가용자금(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은행의 가용자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따라서 은행의 대출도 줄어들어 경제에 풀리는 돈(통화량)도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의 가용자금은 그만큼 늘어나고 따라서 은행의 대출도 늘어나 경제에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된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거나 그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이 조정한 기준 금리는 모든 시장금리의 기준
팬데믹 극복 위해 시장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 풀어
11차례 금리인상…고금리 기조 당분간 지속 전망

겉으로 보기에는 지급준비금정책은 중앙은행의 매우 강력한 통화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급준비금정책의 강력한 효과는 오히려 지급준비금정책의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지급준비금정책이 그만큼 정교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연준이 경제에 10억 달러의 돈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연준은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정확히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준비금정책은 정교하지 못해서 연준이 의도한 대로 그 목표를 정확히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다. 그 이유는 지급준비율의 작은 변동도 통화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본시장이 잘 발달된 미국에서는 그동안 지급준비금정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지급준비율을 거의 제로 주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하고 있다.

그 반면 중국에서는 지급준비금정책이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법정지급준비율을 1985년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1차례나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자본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20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법정지급준비율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5.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방식

연준은 통화정책을 사용해서 통화량을 조정함으로써 대출금리, 신용카드금리, 모기지금리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연준은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먼저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조정한다. 기준금리란 은행 간 대출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를 말한다.

가령 Citibank는 대출 기회와 투자 기회가 많은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다른 은행(예를 들면 BOA)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하려고 한다. 반면 BOA는 대출이나 투자 기회에 비해 자금이 넉넉할 경우 기꺼이 다른 은행에 자금을 대출해주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은행 간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연방기금이자율(federal funds rate)이다. 사실 federal funds rate는 민간은행 사이에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인 연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통화정책, 특히 공개시장조작을 통해서 목표 federal funds rate를 원하는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연준이 federal funds rate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만약 연준이 federal funds rate를 현 수준인 5.25%에서 5.00%로 인하하기를 원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일정한 규모의 재무성증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겠다고 제안한다(공개시장매입). 공개시장위원회는 현재의 federal funds rate(5.25%)가 목표로 하는 5.00%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가 5.00%로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재무성증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는 입장을 취한다.

연준이 증권을 은행으로부터 매입하면 연준은 매입 대금을 은행의 지준예치금계정에 입금하기 때문에 은행은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federal funds rate를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federal funds rate가 5.00%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반대로 연준이 federal funds rate를 현행 5.25%에서 5.50%로 인상하기를 원한다면 FOMC는 재무성증권을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제안한다(공개시장매각). FOMC는 현재의 federal funds rate(5.25%)가 목표로 하는 5.50%보다 낮기 때문에 금리가 5.50%로 올라갈 때까지 무제한으로 재무성증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입장을 취한다. 연준이 증권을 은행에 매각하면 연준은 매각 대금을 은행의 지준예치금계정에서 인출하기 때문에 은행은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federal funds rate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이다. 이러한 공개시장매각은 federal funds rate가 5.50%로 올라갈 때까지 계속된다.

연준은 은행으로 하여금 federal funds rate를 올리거나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기준금리의 조정은 연준과 은행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된 기준금리는 모든 시장 금리(대출금리, 신용카드금리, 모기지금리 등)의 기준이 되며 시장금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시장 금리 = 기준금리 + 자금에 대한 수요 공급 + 신용도(risk)

이와 같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내려간다.

미국정부와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풀었다. 그 결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2022년 3월에는 연 8.5%)으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자 연준은 2022년 3월 17일 그 당시 0%였던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 시작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된 것이다. 그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까지 11차례나 인상함으로써 긴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을 베이비 스텝(baby step)이라고 하고 0.50%포인트 올리는 것을 빅 스텝(big step)이라고 하며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이라고 한다. 연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연간)이 2%로 떨어질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율(연간)은 3~4%에 달한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대로 떨어지려면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고금리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샤'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 식샤

'천원의 식샤' 모금 사업 간단 참여신청서 *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america@snu.ac.kr 으로 보내주세요.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성명:	연락처(이메일):
학과(특별과정):	약정금액:

서울대학교발전재단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 +1-212-768-9144 F. +1-212-768-4494 E.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 +1-213-435-1974 E.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 +82-2-871-8004 E. snuf@snu.ac.kr

미국을 갈라놓는 문화전쟁

김학천
(치대 70)

'입에서 녹지, 손에서는 녹지 않는 초콜릿'이라는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다.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초콜렛 브랜드 M&M's다. 제과회사 마즈(Mars)는 동그란 모양에 알록달록한 여러 색을 입히고 표면에 m자 로고가 쓰여있는 이 초콜릿에 눈과 팔, 다리가 달린 캐릭터들을 광고 마스코트로 내세우고 있다.

모두 6명으로 레드, 옐로우, 블루, 오렌지, 그린, 브라운. 그 중 그린과 브라운은 여성 캐릭터다. 헌데 지난 2022년 1월, 마즈회사는 이 중 그린과 브라운 마스코트의 복장을 조금 바꾸었다.

그린 마스코트가 신고 있던 부츠를 운동화로 바꾸고, 브라운 마스코트가 신고 있던 높은 킬 힐을 조금 낮춰 미들 힐로 바꿨다. 마즈사는 '오늘의 세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NYT는 '두 여성 캐릭터의 아픈 발에 휴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즈는 새로운 퍼플 칼라의 여성 캐릭터를 공개한 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포장지에 그린(Green), 브라운, 퍼플의 여성 마스코트 셋만 모아 그린 제품도 내놓았다.
(브라운은 'Miss Brown' 으로 더 잘 불린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가져올 사회적 갈등을 아무도 예기치 못했다.

보수성향 Fox 뉴스 채널의 앵커 터커 칼슨이 '캐릭터가 매력을 모두 잃고 완전 중성적' 으로 간다면서 'Woke M&M'이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보수 진영까지 합세해 진보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지나치게 기운 것이라며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Woke-washing'과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Woke'는 '정치적 올바름(PC)'와 비슷한 의미로 '젠더 및 인종, 성소수자 차별 등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해서 'Woke-washing'이란 사회 문제에 깨어있는 척하며 대외적으로 어필하지만 실제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거나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러한 정치적 분쟁에 마즈 회사는 '초콜렛이 신은 신발조차 사회가 양극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이건 우리가 결코 원하던 바가 아니다. 우리는 모두를 하나로 묶길 원한다'며 지난 해 1월 '모든 마스코트의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백기를 들었었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최근 버드 라이트 맥주의 트랜스젠더 광고 모델이나 디즈니의 흑인 인어공주를 비롯해 소설, 영화 등 다방면에서 시대적 어젠더에 따른 내용 수정으로 인한 양진영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미국의 보수와 진보간의 격렬한 논쟁을 두고 외신들은 '문화 전쟁(Culture Wars)'이라고 칭하고 있다.

문화전쟁의 유래는 19세기 독일 정치에서 비롯됐지만 (문화투쟁:Kulturkampf) 20세기 후반에 들어 제임스 헌터가 쓴 '문화전쟁(Culture Wars)' 책을 계기로 미국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사이에서 다양한 미국문화 즉, 동성애, 페미니즘, 인종주의, 예술, 반전(反戰) 등에 대한 충돌로 빚어진 사회 여러 분야에 걸친 갈등까지 폭넓은 의미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일례로 2020년 대선시 트럼피즘(Trumpism)에 따라 미국 사회가 갈라지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과 시위에 대해 유명대학 총장들이 취한 애매한 태도에 반발한 고액 후원자들의 압력으로 사임하는 등, 그 과정에서 양 진영이 치른 문화전쟁.

특히 하버드 총장의 경우, 그 사퇴의 결정적인 이유가 반유대주의 논란 외에 과거 논문 표절 의혹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 배경은 단순한 학계 부정이라기 보다 고조되는 이념 전쟁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를 두고 NYT는 캠퍼스 정치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의 '대리전'이라 칭했고 이 문화전쟁은 현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2개의 전쟁과 함께 올 대선 과정에서 재점화할 조짐이라는 바.

허니 진보적 이슈를 둘러싼 미국의 문화전쟁, 한창 중이란 얘기인데 어쩌면 유일하게 인간 남자 친구도 있다는 M&M's의 미스 브라운(Miss Brown)이 그 답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녀에겐 '항상 옳다!' 라고 하는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하니 말이다. 헌데 어느 한편? 아님 양쪽 다? 영원한 숙제 하나 더 늘은 셈.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인디아 아리와 '긍정의 에너지'

언뜻 투박해 보이지만 실은 공들여 빚어낸 질그릇.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소울 뮤지션. 그의 노래는 세상 사는 게 화날 때마다 한번 들으면 위안이 된다. 이 여인에 꽂힌 이가 버락 오바마다. 그에 따르면 위로가 되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가르침까지 준다고 하니 더 말해 무엇하랴. 인디아 아리(India Arie)가 바로 그런 가수다. 아리는 R&B와 소울을 기반으로하는 싱어송라이터다. 그래미 어워즈에서 지금까지 29번 후보에 올라 6번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바마는 알려진 대로 자신의 대선 캠페인을 변화로 꽉 채웠다. 전국적인 지명도가 낮은데도 오바마가 민주당 후보 자리를 꿰차고 이어 백악관까지 차지하게 된 데는 인디아 아리의 공이 작아 보이지 않는다.

변화, 변화, 변화. 오바마의 유세현장엔 인디아 아리의 대표곡 '희망이 있네요(There's Hope)'가 울림이 돼 퍼졌다. 변화와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곳마다 인파가 넘쳐났다.

"가진 게 적었던 때는 난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뭐 이래, 백만 달러가 있어도 행복하지 않지 뭐야/ 그제야 깨달았지/ 자동차가 크고 멋지다고 다가 아니야/ 네 마음속 믿음의 크기가 중요하지."

중저음의 넓고 깊으면서 쫄깃한 리듬이 이어진다. 노래의 하이라이트인 코러스 대목이다. "희망이 있네요/ 미소 짓는 데 돈이 드나/ 웃는 데 돈을 내야 하나/ 주님께 감사해요/ 희망이 있네요."

"TV를 켤 때마다 (희망이 있네요)/ 누군가 미친 짓을 하는데도 (희망이 있네요)/ 개스값이 오르는데도 (희망이 있네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희망이 있네요)/ 진실되게 살아가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왜냐구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변화를 화두로 내걸고 담대한 개혁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오바마. 재임 초기 지지율 60%가 퇴임 직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정권말기에 나타나는 권력의 누수현상 곧 레임덕을 겪지 않아 새로운 역사를 썼다. 노랫말처럼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일 터.

인디아 아리는 '긍정의 음악' 이른바 '파지 뮤직(posi music)'의 마술사다. 그래서인지 가사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난 비디오에 나오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수퍼모델처럼 잘 빠지지도 않았구/ 그래도 난 날 무조건 사랑할 줄 알아/ 난 여왕이거든." 어느 자리에 있든 자신이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인디아 아리가 나오기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대중음악의 불멸' 빙 크로스비. 그가 부른 '긍정을 강조하세요(Accentuate the Positive)'는 '파지 음악'의 원조로 꼽힌다.

"긍정적인 것만 강조하세요/ 부정적인 건 없애버리고/ 어설프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과는 섞여 지내지 마시고."

그러면서 왜 긍정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 빗댔다. "고래 뱃속의 요나, 방주의 노아/ 그들은 뭘 했을까요/ 모든 것이 깜깜하게 보였을 텐데/ 이봐요, 그들은 긍정적인 것만 강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일랑 아예 접어두고."

노래가 나온 때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이다. 전쟁의 참화, 파괴, 상실감과 자괴감 등 네거티브가 일상을 지배했을 때다. 그런데도 희망을 노래했다. 삶은 어쨌거나 살아야 하니까. '파지 음악'이 팝의 한 장르로 태어난 배경이다.

대체 긍정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인디아 아리의 말대로 웃음이 아닐지 싶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우리말도 있지 않은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온갖 핍박을 받았던 한민족이 생존을 이어온 원동력도 알고 보면 웃음이다.

새해엔 억지로라도 하루 한 번 이상은 크게 '하하하' 웃어보자. 웃음과 긍정으로 가득한 세상. 삶에 활기가 펄펄 묻어날 게다. 웃는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닐진대.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故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종수 (수의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김창수 (약대 64)
뉴욕-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8)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혜경 (문리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약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옥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故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묘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욱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효숙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권봉성 (문리대 64)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흥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륭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효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종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종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랑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추재옥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의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방은호 (약대 43)
박평일 (농대 69)
서휘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옥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헌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헌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중민 (공대 64)
손재옥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틀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나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문엽 (농 83)
김법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용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종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창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노문병길 (문 61)
민영기 (공 65)
민일기 (약 69)
박명민 (상 63)
박민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임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종수 (수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옥 (간 69)
박호현 (의 52)
방흥근 (공 64)
배동완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홍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
손갑수 (약 59)
손기용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송요준 (의 64)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윤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옥 (의 63)
오찬수 (약 57)
오형원 (의 53)
원종민 (약 57)
위종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종 (농 74)
유석환 (치 55)
육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희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범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헌 (간 70)
이용한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묘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채진 (문 55)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옥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재국 (농 67)
주정래 (상 65)
주훈 (음 69)
차종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입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의일 (공 62)
한정헌 (치 55)
한홍택 (공 60)
홍성선 (약 72)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흠 (공 55)
황현상 (의 55)

뉴욕
AiJa Lee
곽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영국 (상 60)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김경일 (치 61)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영무 (공 75)
김영용 (치 55)
김영철 (의 55)
김영휘 (법 80)
김용연 (문 63)
김정희 (간 69)
김종원 (생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암 (의 52)
김현중 (공 63)
문석면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무 (음 65)
박건이 (공 60)
박경희 (음 57)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변경웅 (공 65)
배상규 (약 60)
서종선 (사 57)
석창호 (의 66)
선종칠 (의 59)
성기로 (약 57)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웅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성택 (상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유인숙 (간 63)
유재섭 (공 65)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섭 (의 57)
윤현남 (공 64)
이강욱 (공 70)
이명종 (공 72)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종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정웅 (사 63)
최한웅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용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금 (간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일 (사 63)
홍정표 (음 67)

뉴잉글랜드
곽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소 (간 61)
김선혁 (약 59)
박영철 (농 64)
박종건 (의 56)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약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주창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

네바다
김삼순 (상 67)
김영종 (치 66)
김용재 (의 60)
정상진 (상 59)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용정식 (농 86)
이창재(문 56)
주한수(수 62)
황효숙(사 65)

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
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

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정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왕 (공 64)
남광순 (음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장호 (의 67)
이관모 (의 55)
이성원 (공 65)
이창하 (공 56)
이홍기 (공 62)
임승쾌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춘임 (간 67)
조태목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

샌디에고
고경하 (공)
남장우 (사 56)
이문상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 (공 64)
이영신 (간 77)
임춘수 (의 57)

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회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용추 (공 69)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박동수 (정 58)
박정일 (의 61)
박창욱 (공 56)
백윤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균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준 (사 61)
윤덕상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정 (공 69)
이동균 (공 75)
이소희 (간 68)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연학 (공 69)
천현일 (농 62)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재은 (의 59)
홍훈건 (의 64)
홍청일 (약 57)
황소냐
황치룡 (문 65)

아리조나
진명규 (공 70)

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훈 (사 60)

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고)이영웅 (의 57)

워싱턴 DC
강길종 (약 69)
고의결 (의 55)
곽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한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응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석균범 (문 61)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제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신 (인 74)
유영준 (의 74)
이건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

워싱턴주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류성열 (공 72)
변동혜 (법 58)
안승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송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한 (농 58)

유타
김인기 (문 57)

조지아
김기춘 (공 61)
김영서 (상 54)
김종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응 (공 60)
정선휘 (공 65)
최덕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

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

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송 (의 58)

테네시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

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황 (농 56)
윤영주 (문 60)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

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
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현영옥 (수 58)
손재옥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세 (공 76)
안세현 (의 62)
유영걸 (의 70)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학량 (약 56)
정흥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복 (수 68)
지흥민 (수 61)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융오 (보 70)

하와이
김달옥 (사 55)
김용수 (농 75)
김윤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

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

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

록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인 (사 72)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송영두 (공 59)	200
박한영 (치)	100
백옥자 (음 71)	200
양은석 (음 70)	5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헌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무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네바다
김삼순 (상 67)	200

미시간
이성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박평일 (농 6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서윤석 (의 62)	200
백순(법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손재옥 (가 77)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묘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뉴욕
신응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이용락 (공 48)	3,0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미주재단	6,000
박수경 (생 84)	1,2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모교발전기금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의석 (공 53)	5,000

나눔기금

필라델피아
손재옥 (가 77)	200

지부분담금

북가주
최경선 (농)	1,300

뉴잉글랜드
최진민 (공 71)	1,000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200

휴스톤
김정환 (공 80)	550

워싱턴
임헌민 (공 84)	80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남가주 |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c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507, LA, CA 90006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Fort Lee,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옥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encevilla Hwy, Lilburm, GA 30345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 $200	❒ $100 (2023/7~2024/6, 1년)	❒ $3,000 이상	❒ $240 (2023/7월 ~ 2024/6월, 1년)	❒ Scholoarship Fund(장학금)
❒ $500	❒ $200 (2023/7~2025/6, 2년)	❒ $5,000 실버	❒ $480 (2023/7월 ~ 2025/6월, 2년)	❒ Charity Fund(나눔)
❒ $1,000		❒ $10,000 골드	❒ $500 (2023/7월 ~ 2024/6월, 1년)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 $_____		❒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 전면 10"x12"	Color	$1,500	❒ $500 (1년, 3.5" x 2")
❒ 전면 10"x12""	Black	$1,000	❒ $1,000 (1년, 5" x 4.5")
❒ 1/3면 10"x4"	Color	$4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흥조(치), 이영묵(공), 이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옥(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캐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례(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캐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헌(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회장 **채규황**(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범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헌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ft@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6)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록키마운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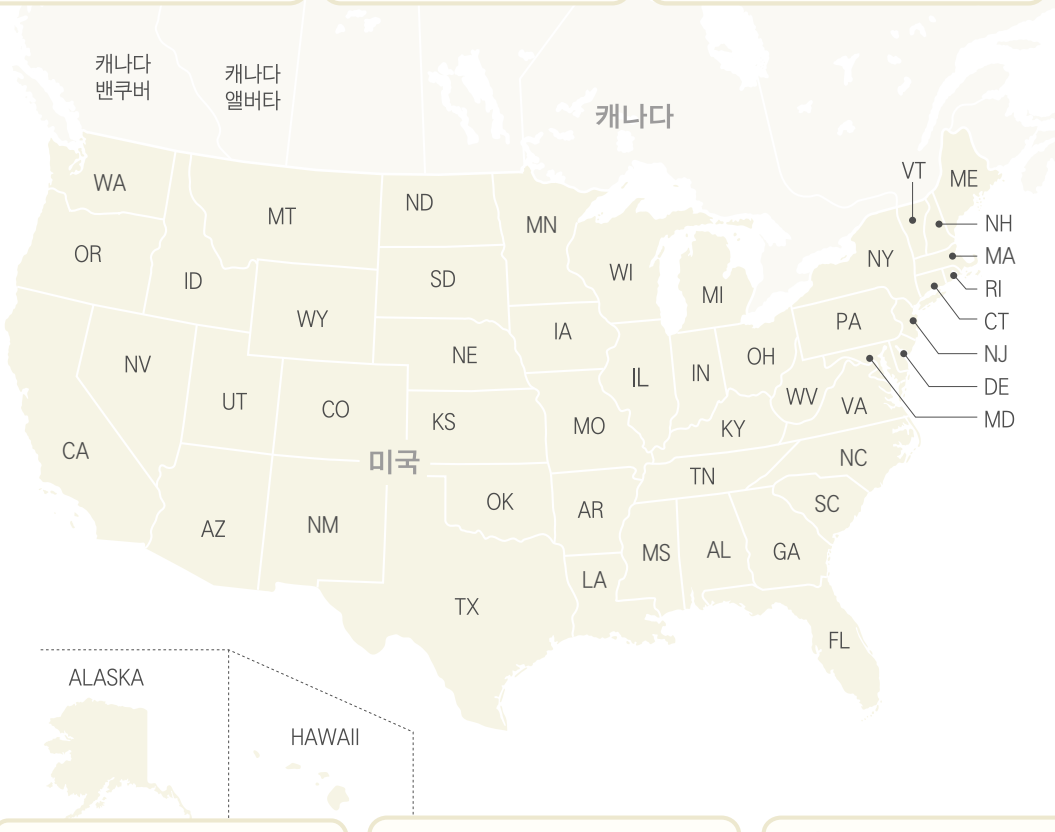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회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 jung@duke.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vols.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결혼해듀오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정균희 (의대 64)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NeuroPsychiatry

정균희 M.D.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103, LA, CA 90006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시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 / 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유원(대학원·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RC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손재옥(생과대 77)

THA
THA CONSULTING

PARKING | PLANNING
ENGINEERING | DESIGN
RESTORATION

www.tha-consulting.com | Janice Haahs jhaahs@tha-consulting.com

HEADQUARTERS
PHILADELPHIA,PA

ADDRESS
470 Norristown Road, Suite 200
Blue Bell, Pennsylvania 19422
TELEPHONE 484-342-0200
FAX 484-342-0222

NEW BRUNSWICK,NJ

ADDRESS
144 Livingston Avenue
New Brunswick, New Jersey 08901
TELEPHONE 732-253-0690
FAX 732-253-0689

ATLANTA,GA

ADDRESS
410 Peachtree Parkway
Cumming, Georgia 30041

TELEPHONE 770-850-3065

MIAMI,FL

ADDRESS
40 NW 3rd Street, Suite 1102
Miami, Florida 33128
TELEPHONE 305-592-7123
FAX 305-592-7113